

2013 블록강좌
우리별이야기, 우리신화

주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담당 이 현
총괄 백기영
디자인 김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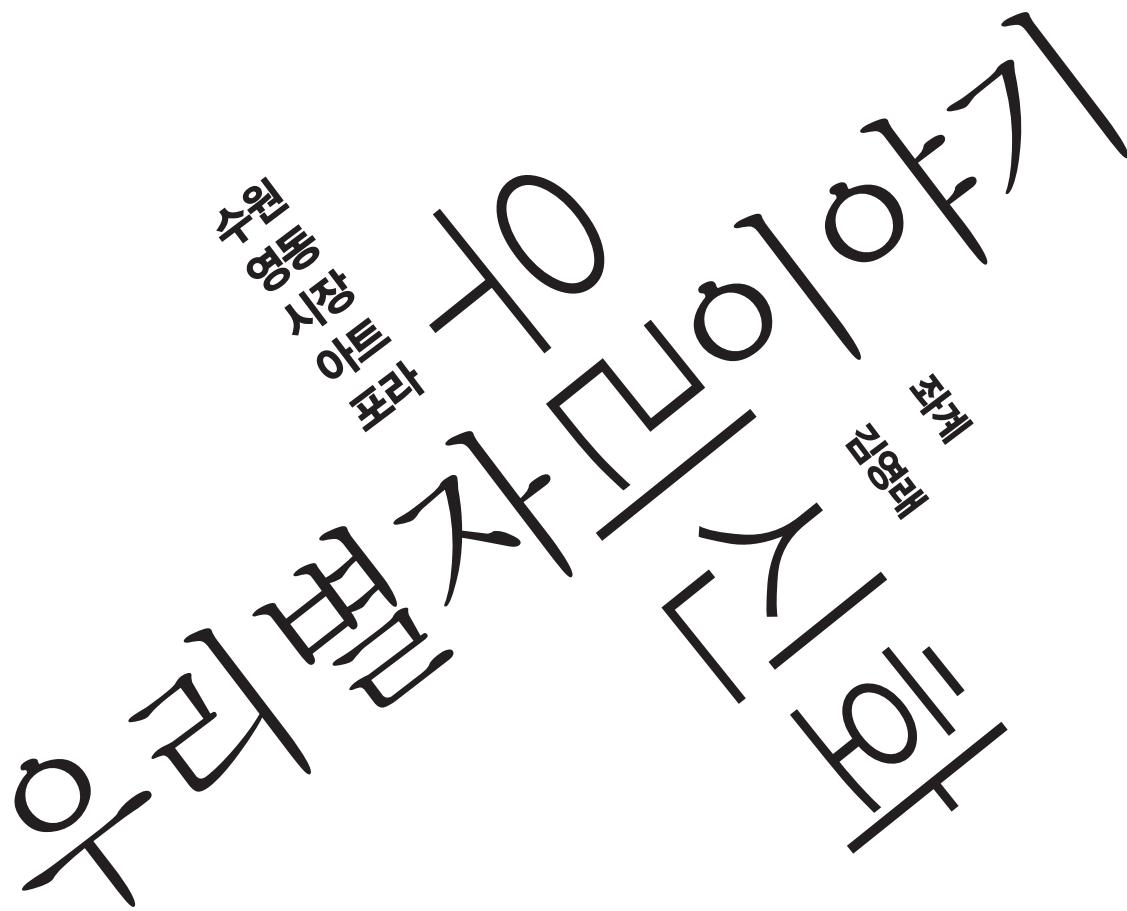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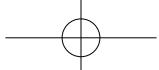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편집인 김영래
발행인 엄기영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 2013 경기문화재단
본 자료집은 경기문화재단 공공미술아카데미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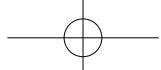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T. 031,231,7263
F. 031,236,0283

www.ggcf.or.kr
twitter.com/ggcf_kr
www.facebook.com/ggcforkr
blog.ggc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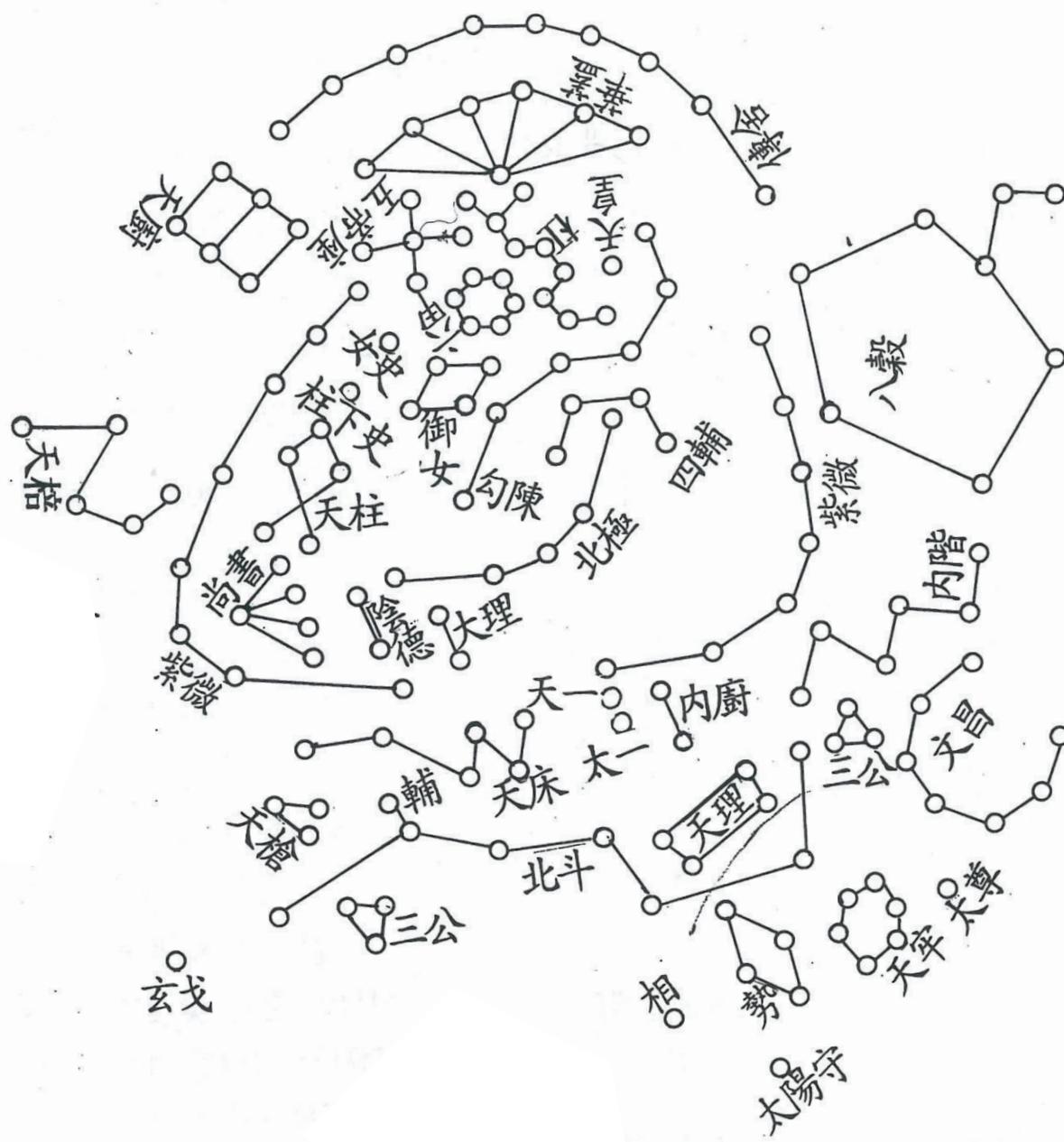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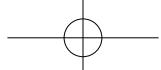
- 1강 '신화는 문명의 기반에 대한 조명이다.'
사라진 태백산과 대해(大海)의 자리
- 2강 '마고의 신들의 초청'
인류의 역사는 아수라(阿修羅)와 천인의 출다리기
- 3강 '마왕 예루리, 사법신 해치 바루나의 탄생'
멀티 주권, 멀티 국민, 멀티 영토가 전제된 민주주의 법의 정신
- 4강 '뮤대륙의 침몰 전후의 사건들'
무엇을 위한 저항이고,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가?
- 5강 '가우리 여신의 귀환 : 바리공주'
공동 선에 대한 필요악의 착취현상은 어떻게 균질되는가?
- 6강 '천조대신 자청비, 월독신 스칸다'
일본의 신화는 왜 아시아의 영원한 저주가 되었는가?
- 7강 '물에 의한 멸망 : '가우리 짜문다''
드라큐라 공포의 본질, 화랑과 원화의 신화적 근원
- 8강 '당금애기와 시바의 춤(Nataraja)'
사악한 리쉬의 법력이 왜소화되는 깨닭
- 9강 '불에 의한 멸망 : 아틀란스의 침몰과
고대의 핵전쟁' – '핵전쟁 앞의 순결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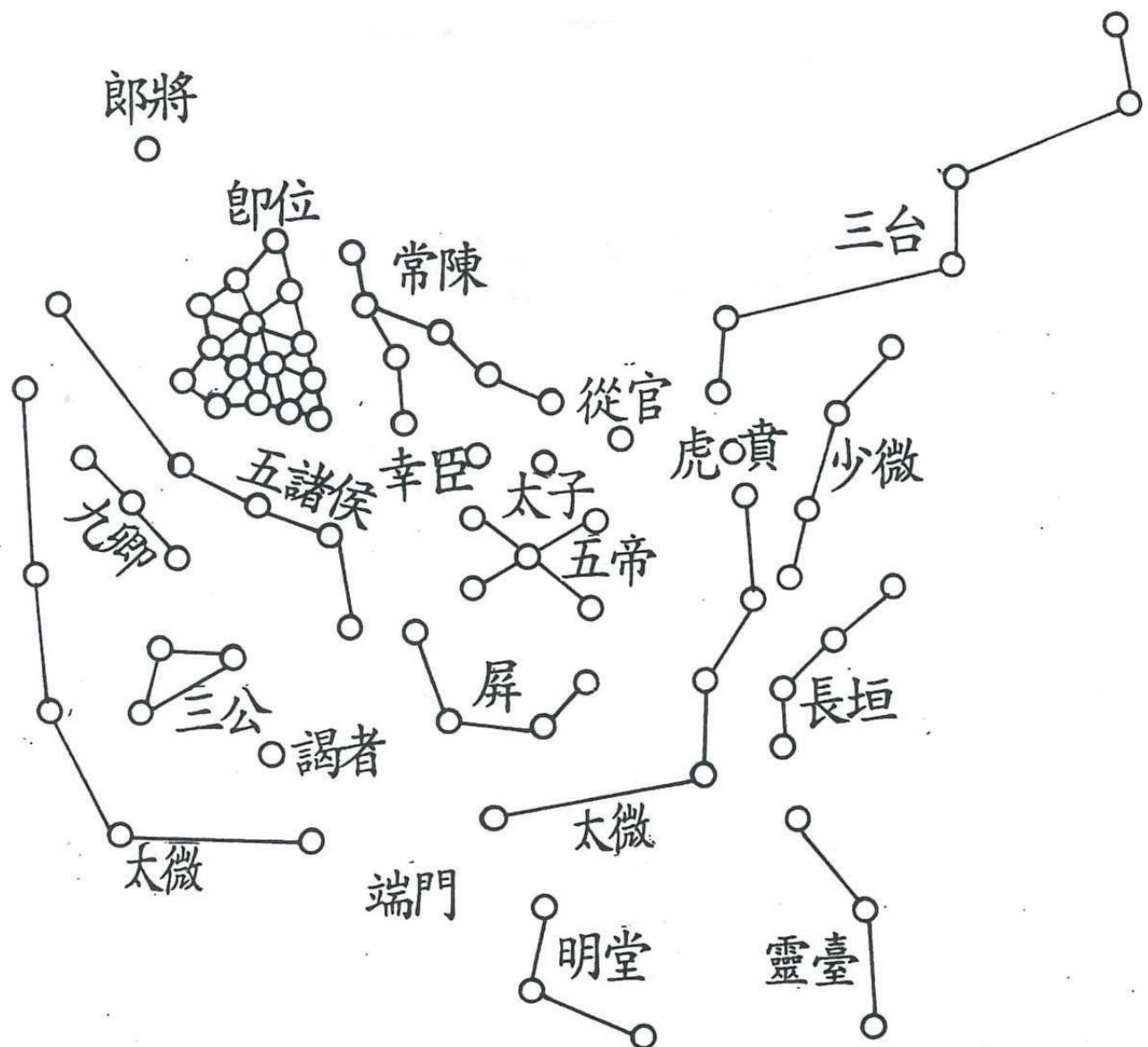
자미원(紫微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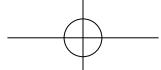
천문류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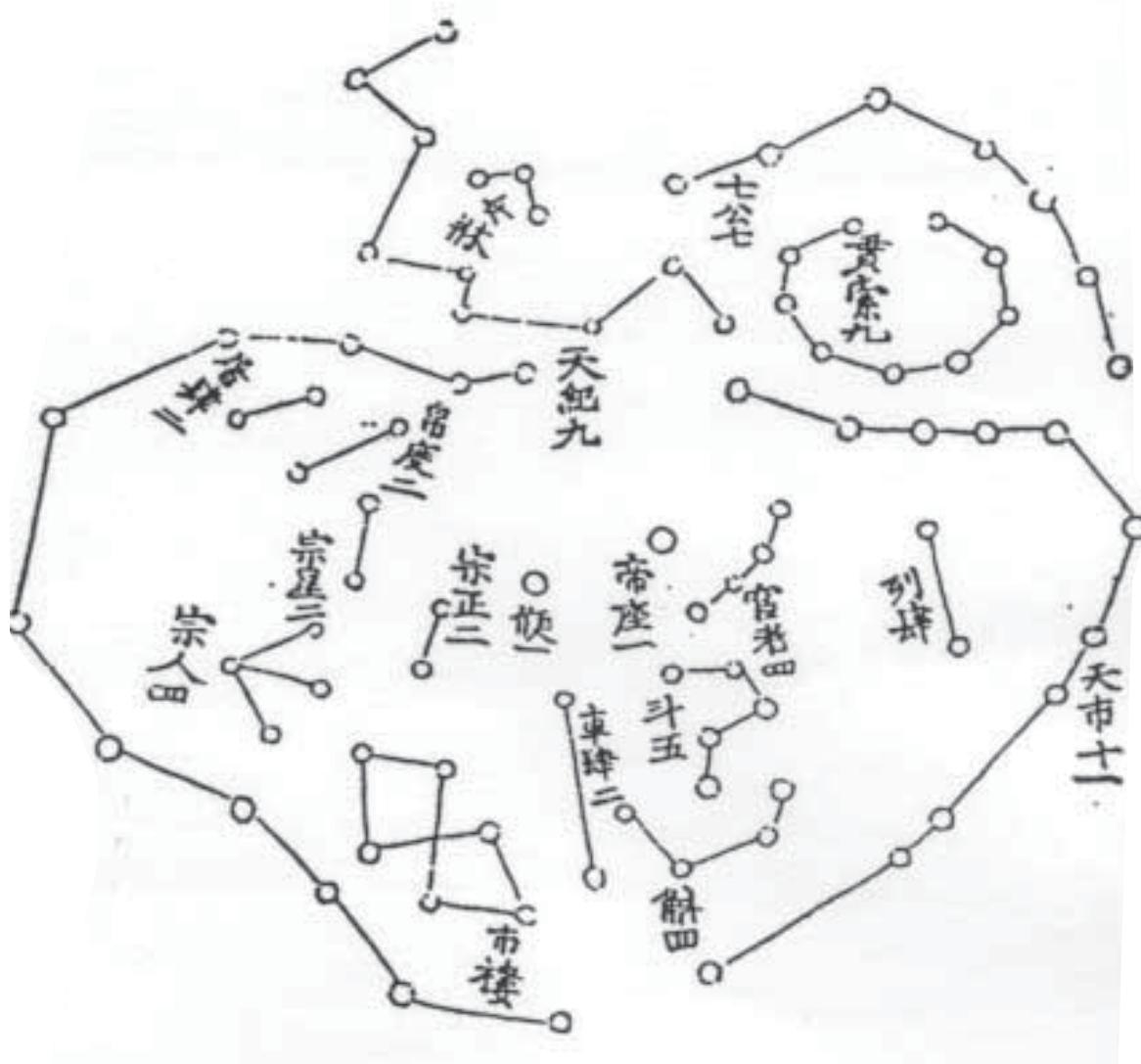
태미원(太微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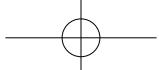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천문류초



천시원(天市垣)



천문류초



1 강(講) : 신화는 문명의 기반에 대한 조명이다.

- 사라진 태백산(太白山)과 대해(大海)의 지리(地理)

가. 신화(神話)는 과학과는 달리 우주(宇宙)의 본질을 직관적 정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신화는 '합리적 사고'가 한계(限界: marginal)에 봉착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신화적 공감대'에 공명을 일으킨다. 즉 합리적 사유와 신화적 사유는 '공시성적인 긴장감'에 놓여져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사례] - 동북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天宮大戰)>과 우리 신화“ 왜 우리 신화인가” (김재용, 이종주 공저 동아시아 출판사, p208 -

<천궁대전(天宮大戰 = 9단락의 '우처구우러본')> 신화는 원래 흑수 여진족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강희(康熙)황제 때 팔기병(八旗兵)들이 국경을 지키려고 사하렌(薩哈連水) 즉 흑룡강 오른쪽에 주둔하여 야크사(雅克薩: 알바진 Yaksa, Albazin)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벼어더인무' 사만이라는 토착 여사만이 아홉 가닥 뿐이 난 흰 순록을 타고 부락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급류를 건너다니면서 강 양안 씨족들의 병을 치료하고 하였는데, 신통한 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한 줄 흰사슴 털을 불어 점을 치고, 아홉 개의 줄철갑상어 뼈로 '하라치(恰拉器)(짝짝이)'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으며, 3일 밤낮으로 이야기를 설창해도 끝이 없었다. <우처구우러본>은 바로 이 여자 샤먼에 의해 전해진 것이다.

(*) 참고: 조선조 효종(孝宗)때 야크사(雅克薩) 전투, 변급(邊岌) 장군

1)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의미

'하늘의 모습'이 열(列)지어 '의례(儀禮)에 공참(共參)하기 위한 '장막(=차(次))'과 분야(分野)로 나어진 <그림>

(*) 차(次): '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중간에 쉬는 장막'을 뜻함.

2) 삼원(三垣)의 별자리

① 태미원(太微垣) : 봉건주의,

② 자미원(紫微垣) : 화백 민주주의

③ 천시원(天市垣) : '화백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호혜시장(reciprocity market)'

3) 동현서몰(東現西沒)과 28수(宿)

① 춘청룡두(春青龍頭) - 각항저방심미기(角亢房心尾箕)

② 하현무후(夏玄武後) - 두우여허위실벽(斗牛女虛室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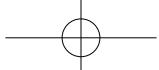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③ 추백호미(秋白虎尾) - 규루위묘필자삼(奎婁胃昴畢紫參)

④ 동주작좌(冬朱雀左) - 정귀유성장익진(井鬼柳星張翼軫)

4) 화백 민주주의

가) 화백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귀족들의 평의제(評議制)가 아님.

(*) 허벌 나게 = 화백(和白 : "허버") + 얼 + 나게.



‘허별나게’는 (1) 매우 빨리 (2) 대규모로의 뜻을 지나고 있다.

나) 그리스 민주주의와 ‘아감넨’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

다) 영산화백과 배달화백

영산화백(靈山和白) : 산(山)과 들에서 하는 화백 주제(主題)별

배달화백(倍達和白) : 호수(湖水)와 포구(浦口)에서 하는 화백 (사회통합)

라) 영산화백에서의 의견의 성숙과 의견의 정리가 병렬(並列)로써 진행

① 의견의 성숙 = ‘사회적 명상’ ② 의견의 정리 = ‘고인돌에서 말벌의 상쇄’

마) 화백의 특징 : 엔딩-룰(ending rule)이 있다.

① 영산화백(靈山和白) : 하세묵청(下世默請)

② 배달화백(倍達和白) : 염수사수(嚴[淨]施水), 북극해(北極海)에로 신성여행

나. 마고지나(麻姑之那)는 (한반도+만주+연해주)를 합친 지역이다.

1) 고리(高麗), 조선(朝鮮)의 강역(疆域)는 도호부 체제

가) 압록강, 두만강 이남(以南) 한반도는 ‘순수한 고리인, 조선인’만 사는 본읍(本邑)

나) 도호(都護)는 ‘크게 지킨다’는 뜻으로 만주(滿洲) 및 연해주의 여진(女眞), 유구(琉球)에도 유구인을 함께 지키는 도호부사(都護府使)가 파견되었다.

2) 마고지나(麻姑之那)는 청령(蜻蛉: 참자리)를 타고 온 여신(女神)이 앞발(제주도) 뒷발(대마도)로 내린 후, 오른 손으로 턱을 감싸고(요동반도), 왼손을 내려온 곳을 향해서 쭉 뻗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임.

3) 서북피아만리일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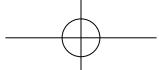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http://blog.daum.net/sabul358/13171237>

4) 마고지나(麻姑之那)의 문헌적 근거

(*) 麻姑之那

〈고리사(高麗史)36권(卷) 세가(世家)36 충혜왕(忠惠王) 편(篇)〉에 이 ‘백성이 부른 〈풍자(諷刺)의 노래〉가 실려 있음.

그런데, 충혜왕(忠惠王)은 원(元)과 고리(高麗)의 갈등 구조 속에서 2번이나 왕이 된 분인데, ① 황음(荒淫)하기 이를 데 없어 다른 사람의 처첩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으면 친척 아주머니뻘이건 여정집여자이든 가리지 않고, 소유하여서 후궁이 100여 명에 이를 정도였고 ② 재리(財利)에 밝아 임금이면서도 백성들이 하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속을 쟁기는 일을 빈번해서 백성들이 “무슨 임금이 저래??”하고 혀를 내두른 당시사람을 일단 이해해야 아래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음. 戊辰 宰相會 百官及國老 欲署名 呈省書 國老多不至事 : 무진일, 재상들이 백관들과 나라의 원로들을 소집하여 원나라 중서성에 제출할 서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나라의 원로들 대부분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성사하지 못하였다. [해설(解說)]에는 충혜왕(忠惠王)이 무도(無道)하다는 여론이 하도 시끄러워서, 원(元)나라에서 일종의 귀양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구명(救命)운동으로 백관(百官)과 국로(國老)를 모았는데, 대부분의 국로(國老)들이 “뭐하러 구명(救命)하노??”하고 참석하지 않았음을 뜻함. 竟 (*未就)(*王傳車 疾驅 訓楚 萬狀 (*未至)(*揭陽 丙子 薦于岳陽縣. : 王(충혜왕)은 마침내 전거(傳車)에 실려서 말(馬)이 끌고 질주(疾走)하지 않아서 천신만고를 겪었고, 계양(鄒陽)까지 가지 못하고 병자일(丙子)에 악양현(岳陽縣)에서 죽었다[해설(解說)]이상하게도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위 문장의 앞부분의 미취(未就)의 부정어인 미(未)를 빼고 해석을 합니다. 미차(馬車)가 질구(疾驅)하는 노선은 대부분이 우회(迂迴)하지만 평탄한 길입니다. 반면에 질구(疾驅)하지 못하는 길은 ‘지름길’이지만, 몸시 험한 오르-내리막길이 반복되는 지형(地形)이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 길이 더욱 고역(苦役)인 것임. 아무리 원(元)의 압력에 의해 귀양가는 王(王)이라고는 하지만, 일국의 왕이므로 편안한 길을 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가장 험한



길로 갔고, 워낙 이리저리 몸이 쓸리다보니 도착해야하는 계양(岳陽)에 끼지 못하고 도중(途中)에 흥(薨)하였음을 뜻함. 或云遇 而國人聞之莫有悲之者: 어떤 사람은 독살(毒殺)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굴(橘)을 먹다가 급체(急滯)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나라 사람들은 (흥(薨)하신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小民至有欣躍以爲復見更生之日. 初宮中及道路歌曰: “阿也麻古之那從今去何時來?” : 빈한(貧寒)한 사람들은 (=소민(小民)) (심지어) 흔쾌히 여기며 “갱생(更生)할 날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날뛰기도 하였다. 처음에 궁중(宮中)과 도로(道路)에 노래를 불렀는데, “아이고! 마고지나(麻姑之那)를 지금 가면 언제 오나?”라고 하였다. 至是人解之曰: “岳陽亡故之難今日去何時還” : 이 지경(地境)에 이른 것을 사람들은 풀어서 말하기를 “악양현(岳陽縣)의 죽은 까닭이 오늘가면 언제 돌이올지가 어려운 것(=난難)”이라고 했다. [해설(解說)]에는 총혜왕(忠惠王)이 2번이나 왕(王)이 된 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 마고지나(麻姑之那)를 가면 또 언제 올까?”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 이는 “다시는 못 오지롱~!!”하는 느낌임 – 임금의 죽음을 야유한 것을 의미함. 총혜왕(忠惠王)이 여염(閨閣)의 좀 반반한 여자만 거의 겁탈(劫奪)하듯이 빼앗고, 또 임금이 여염(閨閣)집과 경제문제에서 경쟁해서 치사(寢事)하게 부(富)를 빼앗아가자. 이런 야유(揶揄)의 노래가 부음(訛音)을 들자 빈한(貧寒)한 사람들은 (=소민(小民)) 환호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 마고지나(麻姑之那)를 가면 또 언제 올까?(阿也麻古之那從今去何時來?)”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임.

나. 압록강(鴨綠江)은 어찌 흐르는가?

1) 조선조(朝鮮朝)에는 압록강이 용만(龍灣)을 통해서 오늘날 육고하(六股河)로 해서 바다로 들어갔다. (고리조(高麗朝)때까지는 난하(灘河)를 허공교(虛空橋)로 뛰어 넘어 → 인시성(安市城) → 천진(天津) → 패수(渾水: 오늘날 청장하(淸漳河)–자이하(子牙河)와 안평(安平)에서 서남류(西南流)하면서 연결되었다.

① 압록강 이산(理山) 맞은편 흔강(渾江) → ② 연산파절(連山把截: 산맥을 연결하고, 갑문(閘門)으로 강을 절취(截取: cut off)하여 요하(遼河)까지 연결된 수로(水路) → ③ 허공교구자(虛空橋 口子: 육교(陸橋)식으로 강을 건너뛰는 것을 허공교(虛空橋)라고 하며, 구자(口子)는 운하(運河)에 대한 조선조의 칭호임, 이는 신민사(新民市) 근처의 유하(柳河)로 해서 목두산(木頭山) 까지 연결됨 → ④ 의무려산(醫巫閭山) 서(西)쪽에서 남류하는 청하(淸河) → 대능하(大陵河) → ⑤ 용만(龍灣: 이는 대능하와 육고하(六股河)를 갑문으로 막은 인공호수임) → 황해(黃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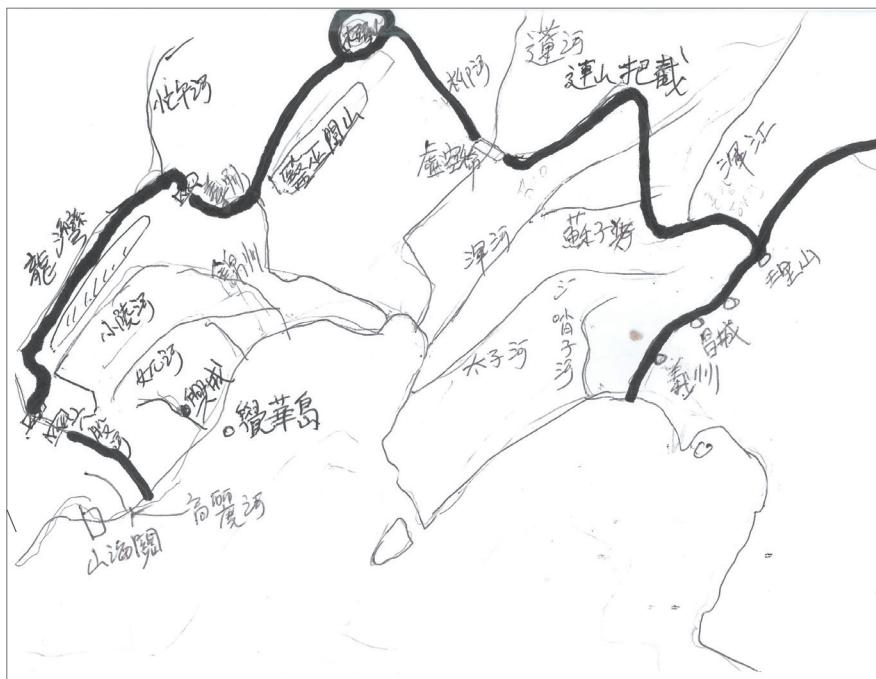
용만(龍灣)은 오늘날 흥산(紅山)문화의 여러 유적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 용만(龍灣)은 배달국(倍達國)때에 건설되어 ‘배달화백(倍達和白)’이란 직접 민주주의로 지구촌을 통합’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시민 의회(議會)’라고 할 수 있는 곳이며, 조선조(朝鮮朝)때까지 우리 민족이 계속 관찰해온 성호(聖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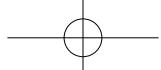
2) 연산파절(連山把截)이 그려져 있는 조선여진분계도

<http://blog.daum.net/sabul358/13708581>

3) 요녕성 수계 http://www.coo2.net/bbs/data/con_4/liaoning_stream.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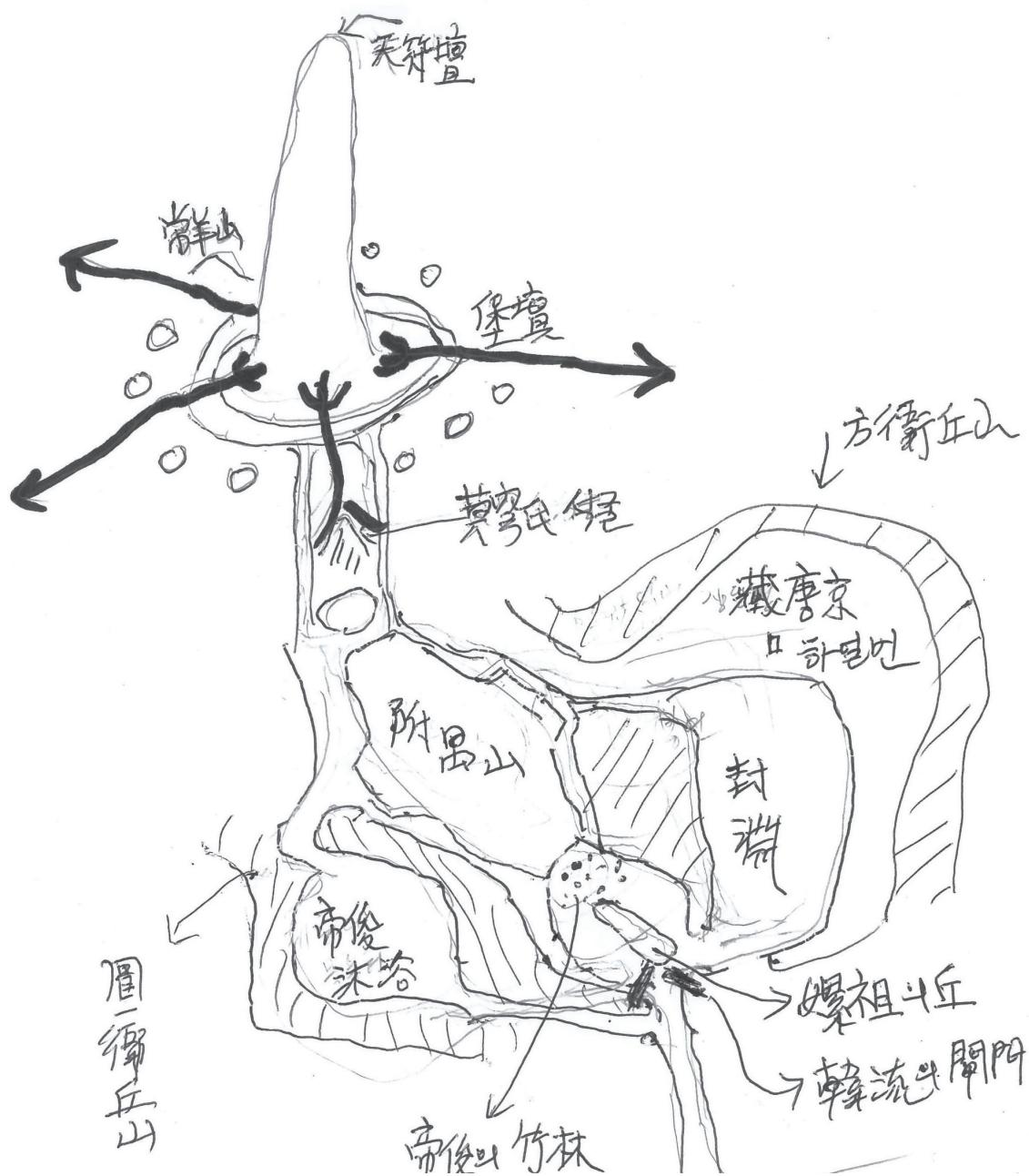
4) 조선조(朝鮮朝)의 압록강의 흐름(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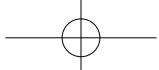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다. 태백산(현 백두산) 폭발 (고리(高麗) 태조 때 사건) 이전의 모습은 어찌 생겼는가?

1) 태백 곤륜산의 모양





2). 태백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문헌들.

(A) 태백일사 제4 삼한관경본기

태백산이 비서갑(非西岬) 계곡으로부터 북쪽으로 달려 우뚝 홀로 치솟아선 곳에 물(物)을 지고, 산을 안되, 돌아가는 곳은 대일왕(大日王)께서 제천(祭天)하는 장소이다.

太白山北走 岖屹然立於非西岬之境 有負水抱山而又回焉之處 乃大日王祭天之所也

(B) 수신기(搜神記) 卷 13

곤륜산 산정은 땅의 머리이다. 이는 생각건대 상제(上帝)가 지상(地上)을 아래로 하는 도읍(都邑)이기 때문에, 그 밖으로 약수(弱水)의 뭇(=연(淵))으로 격절(隔絕)시켰고, 또 불꽃 산(山)들로 고리를 튼 곳이다. 산 꼭대기는 조수(鳥獸) 초목(草木)이 모두 염화(炎火)속에서 자라나무로 이곳에는 화한포(火汗布)가 있다.

崑崙之虛 地首也 是惟帝之下都 故其外絕以弱水之淵 又環以炎火之山 山上鳥獸草木 皆育滋於炎火之中 故有火汗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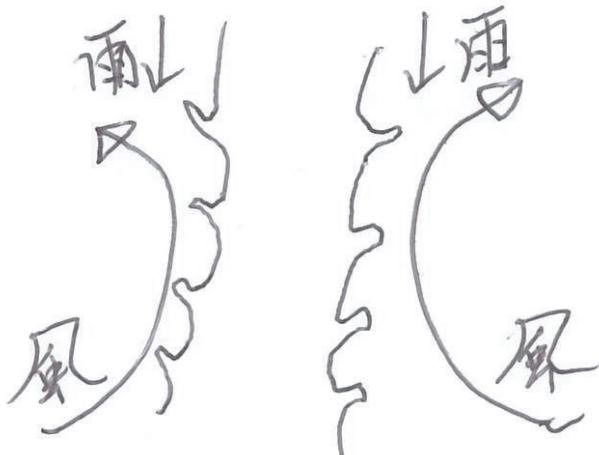
(참고: 백두산의 화서(火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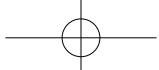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해설(解說)]

약수(弱水)는 '물(水)'의 성격이 급격히 지하(地下)로 빠져서 부력(浮力)이 minus인 것'을 뜻하는데, 그중 구다천(句茶川)-약수(弱水)는 수상(水上)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봉황이 약수(弱水) 위를 지날 때에는 반중력을 지닌 사당(沙棠)열매를 부리에 물거나 부리와 가슴 사이에 끼워서 지나가게 됨.

태백(太白)-곤륜산이 1차 고리로 구다천(句茶川)-약수(弱水)를 지나고, 2차 고리로 환상(環狀) 화산(火山)을 둘렀는데, 링가(Linga)산이 용암(鎔巖)이 밑에서 지속적으로 꾸역 꾸역 계속 올라오는 형태로 높아지는데, 용암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2차 고리에서 뿜어내는 열기로 가 일으키는 대류(對流)의 영향으로 '쳐마식'(◀▶◀)이 굳힌 다음에 다시 그위에 용암이 나와서 또다시 대류의 영향으로 '쳐마식'을 겹겹히 쌓여있는 모양으로 링가(Linga) 산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백산의 훌흘연립(屹屹然立)한 링가(Linga) 산벽(山壁)의 모습(그림)]





태백(太白)-곤륜산(崑崙山)은 산벽 모양이 '처마식'(◀▶)을 겹겹히 쌓은 모양으로 올라가고, 높이로 인한 추위 때문에 산벽(山壁)에는 활엽수는 살지 못하고, 오직 '소나무(침엽수)'가 울창하게 되어 있으면서, 토질(土質)이 화산 바위인지라, 배수(排水)가 극히 잘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태백(太白)-곤륜산(崑崙山)의 모양은 왜 1차 고리인 환형(環形) 약수(弱水)의 연못이 격공(隔空)-중력(重力)을 발휘하여서 봉황(鳳凰)이 '반중력'의 파워(power)를 지닌 사당(沙棠)나무의 열매를 지녀야만 넘을 수 있었가 하는 신화적(神話的) 근거를 짐작하게 한다.

(*) 凤凰弱水 사당(沙棠)

'백제금동대향로 뚜껑 봉황'은 부리와 가슴으로 물고 있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468&docId=1781688&mobile&categoryId=4468>

'강서중묘(江西中墓)의 널방 남벽 벽화'는 부리에 사당(沙棠)을 입에 물고 있음.

<http://realbohemian.tistory.com/85>

(C) 부도지(符都誌) 13장

태백산 밝은 산정(山頂)에 천부단(天符壇)을 설치하였고, 사방(四方)으로 방죽(=보(堡))의 단(壇)을 설치하였다. (각각의) 보단(堡壇)과 링가(Linga)산(=屹屹然立산(山)) 사이에는 각기 3개의 도랑 물길을 내었는데, (산정(山頂)의 천부단(天符壇)을 거쳐서 가는 길은) 그 사이가 1,000리가 되었다. 3개의 물도랑 좌우(左右)에는 '수어(守禦)하는 관문(關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마고(麻姑)의 본성(本城)에서 취한 법도이다.

乃築天符壇太白明地頭 設堡壇於四方 堡壇之間 各通三條道溝 其間千里也 道溝左右各設守關 此取法麻姑之本城

(참고) 요니(yoni): 환형(環形)의 수로(水路) [여기서는 약수지연(弱水之淵)]로써 여성기를 상징함. 링가(Linga) : 남성기를 상징함.

[해설(解說)]

① 삼조도구(三條道溝)를 링가(Lingg)산에서 허공교(虛空橋)로 동서남북 사정(四正)에 내는 까닭은 천부단(天符壇)까지 이르는 길을 내는 하천을 태백산 산턱에 까지 내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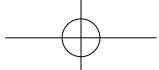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② 북(北)쪽으로는 난 구다천(句茶川)-삼조도구(三條道溝)는 오늘날 송강하(松江河: ↗)의 원류가 되며, 구다천국 도읍 (오늘날 송화호(松花湖) 서안(西岸) 영길현(永吉縣))에서 가장 쉽게 천부단(天符壇)에 오를 수 있는 길이므로 구다천국(句茶川國)을 <천선(天仙)의 나라>로 칭함.

(*) (참고) 만주 수계지도

http://www.coo2.net/bbs/data/con_4/jilin_stream.jpg

동(東), 서(西)쪽으로는 차릉(岔陵)에서 하수(河水)가 '기울어진 더불유(↙W)' 모양으로 가는 것에 최단거리 수로(水路) (←→)를 형성하는 안내천(案內川) 역할

남(南)쪽으로 약수지연(弱水之淵)에서 비서갑(非西岬) 계곡 한가운데 있는 '붕어(鮒魚)의 산' 붕어 입(口) 쪽으로 두 줄기 폭포 사이에 시옷(ㅅ) 모양으로 삼조도구(三條道溝)가 흘러나가도록 연결되어서 (| ㅅ |) 이곳에 번개가 가장 많이 치게 됨.



시옷(ㅅ) 모양으로 삼조도구(三條道溝)의 폭포를 가르는 돌출된 부분에 '황궁씨(黃宮氏) 석굴(石窟)'이 있음.

③ '붕어(鯰魚)의 산' 붕어 입(口)에 화산(火山)이 있어서 아래에는 활화산의 열기, 위에는 뇌전(雷電)의 열기가 '아크(arc) 노(爐)'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태백일사〉에서 대일왕(大日王)이란 바로 '아크(arc) 노(爐)'를 형성하기 위해서 비서감(斐西岬) 계곡에 들어온 황궁씨(黃宮氏)로 볼 수 있다.

(D) 부도지(符都誌) 제8장, 제10장

제8장에서: 황궁씨(黃宮氏)는 권속을 이끌고 북쪽 사이의 문(門) [=북간지문(北間之門)]을 열고 나가 천산주(天山洲)로 가니 천산주는 매우 춥고 위험한 땅이었다. 이는 황궁씨가 스스로 떠난 복본의 고통을 이겨내는 맹세였다.

黃宮氏 率眷出北間之門 去天山洲 天山洲 大寒大險之地 此黃宮氏 自進就難 忍苦復本之盟誓

제10장에서:

곧 첫째 아들 유인씨(有因氏)에게 명하여 인간세상의 일을 밝하게 하고,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모든 주(洲)를 돌아다니게 하였다. 황궁씨가 곧 천산(天山)에 들어가 돌(石)이 되어 길게 조음(調音)을 울려 인간세상의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대성회복의 서약을 쟁취하였다.

乃命長子 有因氏 使明人世之事 使次子三子 巡行諸洲 黃宮氏乃入天山而化石 長鳴調音 以圖人世惑量之除 盡無餘 期必大城恢復之誓約成就

[해설(解說): '아크(arc)노(爐)'와 주처(周處) 장군의 알미늄 버클(buckle)에 대해]

주역(周易) 뇌화풍(雷火豐) 괜(卦)는 밑에 불(火)이 있고, 그 위에 번개(=뇌(雷))가 있으므로 '아크(arc)노(爐)'를 설명한 괜임.

즉 "황궁씨가 곧 천산(天山)에 들어가 돌(石)이 되어 길게 조음(調音)을 울렸다. (黃宮氏 乃入天山而化石 長鳴調音)"는 기록은 <아크(arc)-노(爐)>를 형성케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豐亨 王假之 勿憂宜日中

: 풍(豐) 괜(卦)는 형통(亨通)합이다. 왕(王)은 태양 한 가운데 마땅함(=의(宜))을 걱정치 않고 빌릴 수 있다

六二 豊其蔀 日中見斗 王得疑疾 有孚惠若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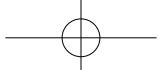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六二) 아크(Arc)의 ('덧방 친' 방전(放電)-극(極)인) 빈지문(=부(蔀))을 풍성(豐盛)케 하면, 태양 한가운데 복두(北斗)를 볼 수 있다. 왕(王)은 (고열(高熱)을) 얻을지에 대한 의심(疑心)이 괴롭게 닥치나, (고열(高熱)은) 부화(孵化)됨이 있으나, '아크(arc)가 발동(發動)' [=발약(發若)]하니 길(吉)하다.

九三 豊其沛

(九三) (아크(arc)의) 깃발(=쾌(沛))을 풍성하게 한다.

日中見沫 折其右肱 無咎

: 태양 속에 (아크(arc)의) 포말(泡沫)들을 보게 되니, (두 다리, 두 팔로) 상징된 방전(放電)-음극(陰極)과 양극(陽極)중에 양극(陽極)중의 하나인) 오른 팔을 자를지라도 '뒷 탈은 없다' (=무구(無咎))



九四 豐其蔀

(九四) 아크(Arc)의 ('덧방 친' 방전(放電)-극(極)인) 빙지문(=부(蔀))을 풍성(豐盛)케 한다.

日中見斗 邁其夷主 吉

: 태양 한 가운데 북두(北斗) 아크(arc)를 보지만 (구리(Cu) 코일(coil)을 다루는) 이주(夷主)가 (코일(coil)을 더 감기위해) 멀리 가서야 만나니(=매(邁)) (더욱 고열(高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길(吉)하다.

(蔀: 빙지문 (부) => (비바람등을 막기 위해) 여러 짹을 덧방 치되, 한 짹씩 끼웠다 떼었다 하게 만든 문)

즉 비서갑(非西岬) 계곡에는 황궁씨(黃宮氏)가 '아크(arc)노(爐)'를 설치한 지역이 있었음이
주역(周易) 震(雷) 풍(火) 豐(豐) 괜(卦)에 나타난다는 점임.

문제는 고대 동양에 “전극(電極)을 음양(陰陽)으로 나누어 전기분해하거나 아크(arc)노(爐)를 설치한 역사적 유물(遺物)이 있는가?”

개과천선(改過遷善)이란 사자성어(四字成語)의 주인공인 주처(周處: (242~297)) 장군의 혁대(革帶) 버클(buckle)이 그의 묘(墓)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때 중국 고고학계는 빨칵 뒤집히는 되었음, 그 이유는 버클에서 '알미늄' 성분이 대량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임.
'알미늄'은 전기분해를 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 없는 금속(金屬)이기 때문임.

(참고: 의흥삼횡(義興三橫) ①남산(南山)의 호랑이, ②장교(長橋)의 교룡(蛟龍) ③주처(周處)

그러나 '알미늄'을 전기분해로 얻게 하는 장소가 바로 대일왕(大日王) 황궁씨(黃宮氏)의 석굴(石窟)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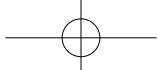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E) 산해경 대황복경 [1]

동북해(東北海)의 밖, '크게 거친 지역(=대황(大荒))'의 하수(河水)가 (음(Q)자 처럼 돌아 남행(南行)하는) 사이에 부우산(附山)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우(顛頃)의 9번(嬪)이 장사지냈다. 이 부우산(附山)에는 구구(=丘鳥)久:수리부엉이), 문폐(文貝) 이유(離愈) 난조(鸞鳥) 황조(黃鳥)들이 크고 작은 온갖 것들이 있으며,

東北海之外大荒之中河水之間附禺之山帝顛頃九賓葬焉爰有(丘鳥)久文貝離愈鸞鳥黃鳥大物小物

[해설(解說)]

- ① 학의행(郝懿行)은 부우산(附山)은 무산(務隅山: 해외북경 [19], 해내동경 [12]의 부어산(鮒魚山)과 동칭(同稱)으로 봄. 비서갑(非西岬) 계곡은 지열(地熱)로 인해서 열대(熱帶) 및 아열대 기후가 연출되었고, 여기에는 '곰(熊)의 (gomme) 나무'가 있었음.
- ② 다음문단을 보면, 부어산(鮒魚山) 남쪽의 방(方)-위구산(衛丘山), 원(圓)-위구산(衛丘山)에서 곰(=옹(熊), 비(羆))이 무척 많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이 부어산(鮒魚山)계곡으로 올라와서 마치 젖(=유(乳))을 먹듯이 고무나무 수액(樹液)을 먹자, 이 나무를 ('곰의 나무'→곰므(gomme) 나무→고무 나무)로 음운변화를 일으켰다. 삼국시대 때에 비서갑(斐西岬) 지역 밖에서 '곰의 나무'가 있자, 삼한(三韓) 사람들이 이를 곰므(gomme)로 칭하는 것을 듣고 유럽인들에게 곰므(gomme)란 말을 쓰게 된 것이다.
- ③ '고무'는 황화(黃化)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선조는 '황(黃)을 내는 균(菌)'으로써 고무 수액(樹液)을 마치 콩을 누룩으로 메주를 만들듯이 했기 때문에, 따라서 매우 질기지만, 일정기간 (6~7년)이 지나면 고무가 열(熱)을 내면서 '썩는 고무'인 것임.
'곰의 나무'는 곰(=옹(熊), 비(羆))의 어머니(=여신(女神))으로 여겨졌는데, <／옹(熊)>이란 글자를 눌하면, 마치 날개를 2개단 비행선(飛行船)의 모양을 하는 것은 곰 자체보다 '곰의 나무'에서 연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우산(附禹山)에서 산출되는 문폐(文貝)는 ‘고무 부구(浮具)’를 ‘조개(=폐(貝))’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에 문자(文字)를 써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폐(文貝)가 부우산(附禹山) 계곡에 난다는 것은 ‘썩는 고무’ 제조공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폐(文貝)는 서로 업혀서 종횡(縱橫)으로 움직이는 언지(言只)를 결승(結繩)으로 control 하는 ‘쌍방향 학습 도구’에 최종적으로 붙이는 ‘문자판’이다. - 각설(卦說)

그 남(南)쪽의 (각기 나뉘어진 하수(河水)를 끼고 둘러싼) 위우산(衛于山)은 각기 산언덕이 네모모양 원모양으로 300리나 되는데, 이곳에는 청조(青鳥), 낭조(琅鳥), 현조(玄鳥), 호(虎), 표(豹), 옹(熊), 비(羆), 횡사(黃蛇), 시육(視肉), 선괴(璣瑰), 요벽(瑤碧)이 모두 이곳에서 난다.

有青鳥琅鳥玄鳥虎豹熊羆黃蛇視肉璣瑰瑤碧皆出衛于山丘方圓三百里

위구산(衛丘山) 남(南)쪽에 제준(帝俊)의 죽림(竹林)이 있다. 대나무 숲 남쪽에 적택수(赤澤水)가 있는데, 이름을 봉연(封淵)이라 한다.
丘南帝俊竹林在焉 大可爲舟 竹南有赤澤水 名曰封淵

[해설(解說)]

봉어의 산 외곽으로 두 줄기로 나뉘어 흐르는 하수(河水)가 동(東)쪽인 〈등(背)-지느러미〉쪽에서 방(方) 위구산(圍丘山)을 형성하고, 서(西)쪽인 〈배(腹)-지느러미〉쪽에서 원(圓) 위구산(圍丘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붓은 좌(左)에서 우(右)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임) 방원(方圓)의 두 위구산(圍丘山) 한 가운데로 흐르는 하수(河水)는

- (1) 먼저 원(圓)-위구산(圍丘山)쪽의 하수(河水)가 ‘봉어의 산’의 〈꼬리-지느러미〉 모양(／▲) 위쪽에 제준(帝俊)의 죽림(竹林)에서 연결되고,
- (2) 〈꼬리-지느러미〉 모양 하단(下端) (▲／) 쪽에서 방(方)-위구산(圍丘山)의 봉연(封淵)이 연결되는 것을 뜻함.

(3) ‘봉어의 산’의 〈꼬리-지느러미〉는 일종의 〈‘제준(帝俊)의 죽림(竹林)’이 있는 깊은 논(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대나무 이름은 ‘천암호(天岩戶) 대나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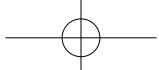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즉 ‘봉어의 입’에 있는 화산(火山)이 간혹 분출하는 용암(鎔巖)이 대류(對流) 현상으로 떨어져서 대나무를 ‘하늘 바위(=천암(天岩))’로 만들지만, 여기에 번개가 쳐서 마치 지게문(=호(戶))처럼 대나무가 쪼개지기 때문.

- (4) ‘봉어의 산’의 〈꼬리-지느러미〉는 이런(▲＼＼▲) 모양으로 불(＼)자 모양으로 된 언덕이 있었음이 ‘이어지는 아래 문장’에 나타나는데, 이 언덕에는 ‘가지 없는 뽕나무’가 뽕잎을 넝쿨식으로 ‘천암호(天岩戶) 대나무’ 위로 뻗음이 묘사되고 있음. 이는 황제(黃帝)의 처(妻)인 누조(燭祖)가 양잠(養蠶)하는 뽕나무인 것임. 따라서 제준(帝俊)의 죽림(竹林)은 불(＼)자 모양의 ‘누조(燭祖)의 언덕’에 의해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음.

가지없는 뽕나무 세 그루가 있는 언덕의 서쪽 [=봉연(封淵)의 서(西)쪽임]에는 전옥(顛頽)이 목욕하는 곳이 있다.

有三桑無枝丘/西有沈淵顛頽所浴

(F) 산해경 해내경 [5]



：유사(流砂)의 동(東)쪽 흑수(黑水)의 서(西)쪽에 조운(朝雲)의 나라, 사체(司彘)의 나라가 있다.

流沙之東黑水之西有朝雲之國司彘之國

[해설(解說)]

조운지국(朝雲之國：구름이 흘러가는 나라), 사체지국(司彘之國：체(彘:긴 코를 가진 테이퍼(tapir 일명: 맥(貊))을 관리하는 나라) 이 있는 위치는 감숙주랑(甘肅柱廊)과 고비사막이 연결되는 소륵하(疏勒河)와 옥문관(玉門關)쪽임. 전혀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먼저 언급된 까닭은 이 기록이 맥이(貊耳)의 유래를 밝히기 위한 것임.

황제(黃帝)의 처 뉘조(雷祖)가 창의(昌意)를 낳고 창의(昌意)는 약수(弱水)로부터 내려와 한류(韓流)를 낳았다.

黃帝妻雷祖 生昌意 昌意降處弱水 生韓流

한류(韓流)는 /머리를 길게 뽑고 '삼가는 귀(耳)'를 하며, 사람 얼굴에, 기린 몸, 튼튼한 허벅지, 돼지 발굽을 한 존재인데 (이는 맥이(貊耳)의 왕(王)임)/ '진흙 뺏'을 취(取)하는 '아씨(阿氏)'라고 일컫는 여인과 (함께) 전옥(顛頃)을 낳았다.

韓流 擡首 謹耳 人面 犀喙 麟身渠股豚止取淖子曰阿女生帝顛頃

[해설(解說)]

이는 뉘조(=누조(螺祖)의 언덕)이 불(火)자 모양으로 튀어나온 곳(串)을 중심으로 '봉어의 꼬리' 부분의 호수(湖水)를 미닫이 식으로 열고 닫는 '한류(韓流)의 갑문'이 있었고, 맨홀(manhole) 통로의 '진흙 쌓인 곳'에 '민물 민어(民魚)'와 이를 잡아먹는 맥이(貊耳)가 최초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함.

(참고) 淖：진흙 (뇨), 암전할 (작).

학의행(郝懿行)은 작(淖)의 옛글자가 촉(蜀)과 같이 보인다하여 작자(淖子)를 촉산씨(蜀山氏)로 보지만, 이는 진흙(뇨)로 보아야함.

맥이(貊耳)는 '겨울 잠'을 자는 승냥이 종류로써 민물 민어(民魚)를 잡아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맥궁(貊弓)이란 말이 나온 것임.

〈누조(螺祖)의 언덕〉 남단(南端)에서 '한류(韓流)의 갑문'을 열고 닫는 격납고(=두문(斗門)) 석실(石室)이 설치되어 있는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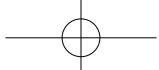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고조선의 당장경(唐藏京: 제천(祭天)하기 위해 '소리'치는 것(=당(唐))을 내장(內藏)한 서울)는 방(方)-위구산(圍丘山)으로 둘러쌓인 봉연(封淵)의 북안(北岸)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이 원래의 하얼빈(=합이빈(洽爾賓): '그물 말리는 곳'이란 의미임)임.

맥이(貊耳)의 모양

<http://blog.daum.net/seokhoart/1049>



(G) 홍사한은(鴻臚桓殷) p123



乙未 28年(1세 단군 시절)

지지(地誌)에 이르기를 열수(冽水)는 지금의 漢水요 비서갑(非西岬)은 지금의 합이빈(治爾濱)이다.

(참고: 하얼빈(哈爾濱)은 만주어로 '그물을 말리는 곳'이란 뜻.

즉 비서갑(斐西岬) 계곡은 적택수(赤澤水) 봉연(封淵)의 북안(北岸)에서 '봉연(封淵)에서 사용한 그물'을 말렸던 것임.

(H) 북부여기 하(下)

임인(壬寅)30년 (B.C.79년) 5월5일에 고주몽(高朱蒙)께서 차릉(岱陵)에서 태어나셨다.

壬寅三十年伍月伍日 高朱蒙誕降于岱陵

[해설(解說)]

〈한류(韓流)의 갑문〉이 쳐진 곳으로 하수(河水)가 한글 오(五)자처럼 남류(南流) 하다가 각기 동서로 흘어지게 하는 남안(南岸)이 바로 차릉(岱陵)임. 이 차릉(岱陵)은 유화성모(柳花聖母)의 고향이기도 함.

(I) 해외서경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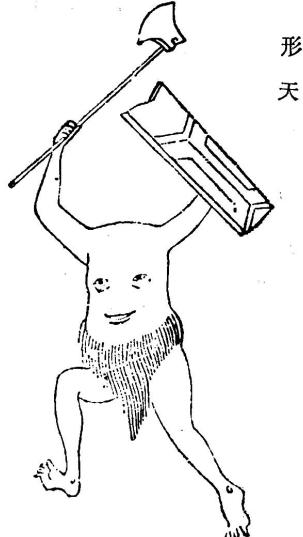
형천(刑天)이 이곳에서 황제(黃帝)와 신(神)의 지위를 다투었는데, 황제(黃帝)가 그의 머리를 잘라서 상양산(常羊山)에 묻자, 곧 젖으로 눈(眼)으로 삼고, 배꼽으로 입(口)으로 삼아,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춤을 추었다.

刑天與帝至此爭神 帝斷其首 葬之常羊之山 乃以乳爲目 以臍爲口 操干戚以舞

[기평국(奇肱國)의 그림]



[형천(刑天)의 그림]



[해설(解說)]

해외서경 [7]은 기평국(奇肱國)인데 황제(黃帝)가 형천(刑天)의 목을 벤 위치는 바로 기평국(奇肱國)이지만, '머리'를 나중에 장사(葬事)지낸 것이 바로 태백산 북쪽의 상양산(常羊山)임을 의미함. 기평국(奇肱國)은 티베트 성호(聖湖) 나무쵸(納木錯)임

기평국(奇肱國)을 묘사한 '其人一臂三目 有陰有陽 乘文馬'에서 문마(文馬)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 속에 유압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는 말(馬)’임.

문마(文馬)는 신화(神話) 속의 말이 아니라, 조선조(朝鮮朝) 때까지 우리 민족의 기선군(騎船軍) [=수군(水軍)]에 판옥선(板屋船)에 8~16 필(匹)씩 구비하였던 말인 것임.

문마(文馬)는 독특한 장구(裝具)를 두르게 되는데, 마신갑(馬身甲)이 안장(鞍裝)을 올려놓는 바로 아래에 발(足)을 끼울 수 있는 <요(凹)>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을 겹치게 하여 이를 펼치고, ‘마익(馬翼)-골절(骨節)’을 뼈에서 잡은 후에 공기(空氣)를 주입(注入)해서 마치 페가수스(pegasus)처럼 별리게 되는 장구(裝具)를 지닌다.. 또 말(馬)의 복대(腹帶)에도 공기를 주입(注入)시켜서 물(水)에서 잘 뜨게 하는데, 마익(馬翼)과 복대(腹帶)을 묶는 ‘끈’ 끝에는 동(銅), 은(銀), 금(金)으로 되어 있는 오이(과(瓜))가 있는데 이를 입과(立瓜), 횡과(橫瓜)라고 칭하며, ‘날개’를 펼치기 전(前)에는 말 엉덩이 쪽에 ‘끈’에 매달고 다님.

문마(文馬)는 펼친 ‘날개’ 끝에 노(櫓)를 끼워서 이를 탄 좌마(坐馬)가 노(櫓)를 저어서 가게 되는데, 빨리 물 때에는 좌마(坐馬)가 ‘고삐’를 놓고 노(櫓)만 잡고 ‘허리를 앞 뒤로 젖히는 동작’에 말(馬) 역시 감응(感應)해서 오리발로 열심히 헤엄치게 되며, 속도를 줄일 때는 노(櫓)를 잡는 손(手)에 ‘고삐’를 당기는 정도 (좌마(坐馬)는 따라서 고삐를 팔목에 좀 더 감고 풀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노(櫓)를 잡는다)에 따라 말(馬) 역시 오리발로 헤엄치는 속도를 조정하게 된다.

또 문마(文馬)의 편자(片子)는 ‘오리발 끼우게 구멍’이 편자 둘레(口)에 있기 때문에, 말(馬)이 헤엄치기 용이하게 되어 있음.

문마(文馬)를 수중(水中)에서 방향 틀 때에는 고삐를 가고자하는 방향 쪽으로 팔목에 좀 더 감고서 노(櫓)를 젖기 때문에, 문마(文馬) 역시 네 다리의 오리발을 감응(感應)해서 헤엄치게 된다.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의 선거제설(船車制說) (정청(正稱)은 논병선화고제비어지구(論兵船火庫諸備禦之具)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어서 조선조(朝鮮朝) 때 기선군(騎船軍)에 유압(油壓)을 만드는 문마(文馬)가 있지만, 배를 탈출시 좌마(坐馬)가 이를 몰았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兵書有駕船如馬之文馬之馳驟按轡則可徐可回而船則不然風水俱駛過於徑疾

병서(兵書)에 말하기를 ‘배(船)를 모는 것’은 마치 말(馬)을 모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문마(文馬))가 달림(=치(馳))에 있어서 ‘질주하게 함(=취(驟))’과 ‘고삐를 당겨서 천천히 감(=안(按))’이 ‘보는 것에 따라서 고삐로 서로 대화’되어야 하는 것과(=만(轡)) 마찬가지로 서서(徐徐)히 가고 방향(方向)을 돌리는 작용이 그대로 배(船)에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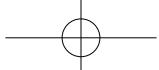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즉 (문마(文馬)가 오리발로 좌마(坐馬)의 노(櫓) 젖기에 함께 하듯이) 배(船)는 (비록 격군(格軍)이 노(櫓) 젖기를 하지만) 풍수(風水)의 흐름이 함께(=구(俱))하도록 (돛(=범(帆))을 돌리는 힘을 문마(文馬)가 만드는 유압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지나친 빠름(=쾌과(駛過))’은 ‘풍수(風水)가 만든 지름길의 빠름(=경질(徑疾))에 불과(不過)하다.

우리 민족은 문마(文馬)를 모는 사람을 좌마(坐馬)로 칭하였는데, 이는 향찰(鄉札)이다.

즉 좌마(坐馬)는 ‘앉은 마(馬)’ → ‘안 즈 마(馬)’의 의미로 ‘즌’은 “존데를 디데울세라”의 ‘존’ 즉 <물(水)에 질퍽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문마(文馬)가 물(水)에 젖지 안케(=않게) 하는 사람” 이란 의미를 지닌다.

위 기평국(奇肱國)은 결국 고대의 비행선(飛行船)들이 티베트 성호(聖湖) 나무초(納木錯)에 많이 있었음을 나타내는데, 이 기평국(奇肱國)의 비행선(飛行船) 속에서 ‘자이로스코프(gyroscope)’ 속의 문마(文馬)’가 만들어내는 유압(油壓)을 동력(動力)으로 움직였음을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또 비행선(飛行船)은 호수(湖水)에 내려오는 것이 가장 랜딩(landing: 착륙)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만약 수중에 침몰(沈沒) 할 때를 대비해서 문마(文馬)가 마익(馬翼)-장구(裝具)를 역시 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기평국(奇肱國)의 비행선은 어떤 원리로 날았던 것일까?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빈치 투석기(Da Vinci catapult)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빈치 투석기(Da Vinci catapult) 그림]



즉 다빈치 투석기(Da Vinci catapult)는 원통(圓筒)을 감음으로써 '세운 활(弓)'을 당기게 하여, 방아쇠를 풀어서 활(弓)의 탄력(彈力)에 의해 원통(圓筒)이 돌아가는 것에 투석기-막대(=초(梢)) 끝에 돌(石)이 던져지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음.

고대 아시아(Asia)의 모든 비행선은 자이로스코프(gyroscope) - 이를 우리는 주옥(珠玉)이라고 표현함 속의 문마(文馬)가 만들어내는 유압으로 마치 다빈치 투석기(Da Vinci catapult)와 같이 원통(圓筒)을 돌려서 철궁(鐵弓)을 감게 한 후에, 이 철궁(鐵弓)이 풀리는 힘에 의해 원통(圓筒)이 돌아가는 회전력을 바탕으로 '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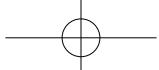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공중(空中)에서 힘을 계속 축적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기술로써도 매우 효율이 낮은 축전기(蓄電器) 밖에는 없는데, 철궁(鐵弓)의 탄성에 '힘을 축적하는 방법'을 고대 아시아(Asia)에서는 발전시켰던 것이다.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의 저술 가운데 차제책(車制策) - 이는 여러가지 차(車)의 제도(制度)(system)에 대한 책략(策略)이란 뜻임. -을 보면, 그 가운데 비차(飛車)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 비차(飛車)가 문마(文馬)가 명예를 빼고 도는 힘으로 철궁(鐵弓)에 힘을 축적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蓋弓二十有八象星也 其他於旗旌 皆有取象 車之取象何其至也

'늑골(肋骨) 모양의 덤개 철궁(鐵弓)(=개궁(蓋弓))'은 별의 28수(宿)를 본뜻 것이고, 기타 (상세한 것은) 깃발(旗旌)에 그려진 신수(神獸)에서 본뜬 것이니, 이 모두가 상(象)을 취(取)함이다. (비차(飛車)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차(車)를 취상(取象)함이 어찌 그 지극(至極)함이 없겠는가?



그리고 비차(飛車)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飛風之車 奇肱之人 所乘而來於殷湯之世者 而不過長華之志怪也 不足煩說

而洪武年間 倭敵圍嶺邑 有隱者教邑守 以車法登城放之一去三十里 此亦飛車之類也

: 바람을 타고 나는 차(車)를 기광국(奇肱國) 사람이 은(殷)나라 당왕(湯王)시절에 타고왔다는 것은 중화(中華)의 괴이(怪異)한 뜻을 장황(張皇)하는 것에 불과해서 떠들어 소문(所聞)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홍무(洪武) 년간(年間)에 - 이는 명(明)태조의 연호(年號)이기 때문에, 명(明)나라 시절 전체를 의미함 - 왜적(倭敵)이 영남(嶺南)의 읍성(邑城) - 진주(晉州)를 포위하였을 때에 은자(隱者)가 - 윤평구(尹平九)로 이름이 전(傳)함. - 읍수(邑守)를 가르켜 비차(飛車)의 법도로 성(城)을 넘어 (개궁(蓋弓)의 힘을) 풀어놓아(=방지(放之)) 한번에 30리를 간 것은 이는 진실로 비차(飛車)의 종류(種類)인 것이다.

문제는 여암(旅菴) 선생께서 '비풍지차(飛風之車)'로 시작하는 문단 바로 앞의 문단에서 기광국(奇肱國)의 비차(飛車)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윤평구(尹平九)의 비차(飛車)의 원리를 해명(解明)하는 문단이 있다는 점이다.

避方晚學 考覽未博 三輪自運之論 曾所未睹 何敢強瞞爲解

: (이미 있는 중국(中國)의 기술) 방도(方途)를 피(避)해 만학(晚學)을 하였기에, 고람(考覽)된 바가 넓지 못하여 '세 바퀴에 의해 비차(飛車)가 스스로 운행(運行)하는' 삼륜자운지론(三輪自運之論)을 일찍이 보지 못하여 어찌 감히 억지로(=강(強)) 기만(欺滿)하는 해석을 할 수 있으리오?

而嘗有臆揣者 設二輪如常車之制 而作一牙輪 置於兩輪之前

그러나 일찍이 가슴에 품은 생각은 비차(飛車)에 두 바퀴를 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차제(車制)와 같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바퀴 앞에 이빨달린 (=치차(齒車)변환) 달린 또 다른 바퀴를 두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윤(輪)은 '속이 빙' 원통(圓筒)으로 깃(=우(羽), blade)이 안(內)으로 향하는 우리 고유의 기달(箕達)-륜(輪)을 의미함.)

以機挑之 則可以自運 漢儒之說 或如是近呼

: (이렇게 하면) 앞에 둔 <기달(箕達)-륜(輪)>이 (뒤에 놓은 <기달(箕達)-륜(輪)>)의 연결 기제(機制)가 (치차(齒車)변환으로) '어깨에 (힘을 실어) 메는 형국 (=도(挑))'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운행(運行)함이 가(可)한 것이다.

(이는 앞의 기달(箕達)-륜(輪)의 뒤의 2개의 기달(箕達)-륜(輪)에 대해서 '회전속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여 원통 내부의 깃(=우(羽)=blade)이 치차(齒車)변환에 의해서 좌측은 더 빨리 우측은 더 늦게 하는 등 - 이경우 비차(飛車)는 우회전하게 됨 - 으로 '비행방향의 자동조절'이 가능함을 거론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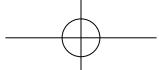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한유(漢儒)들의 삼륜자운지론(三輪自運之論)은 혹 이같은 방법에 가까울 것이다.

- 각설(却說)

즉 산해경(山海經)의 그림에 두 바퀴에 깃(=우(羽)=blade)가 달린 것은 조선조(朝鮮朝)때 까지 비밀리에 전수된 3개의 기달(箕達)-륜(輪)의 방법 이어서 날수 없는 허황한 그림임을 여암(旅菴) 선생은 지적하고 있다.

(*) 기광국(奇肱國)의 비행선의 실제 모습과 고대의 비행선

① 세 개의 눈(眼): 비행사 앞의 창문



② 한 개의 팔(臂) : 삼족오(三足鳥)관련: 삼족오(三足鳥) 중 하나의 다리는 '가슴 팔'이다.

앞쪽에 달린 고무-호스(hose)가 달린 〈구(球)〉를 잡고 하늘을 나는 용도.

⑦ 삼족오(三足鳥)는 허달성(虛達城)-금성(金城) 속에 있다가 영성문(靈星門) 사이로 탈출해서 나가게 되는데, 〈구(球)〉 밑에는 대봉(大鵬), 혹은 거대한 봉황(鳳凰)을 차곡차곡 접은 것을 달고 나가서 일정 높이에 이르게 되면, 호스(hose)에 '헬륨 가스'가 주입되어서 대봉(大鵬) 혹은 봉황(鳳凰)이 허달성(虛達城)-금성(金城)의 외곽(外廓)이 되는 환도(丸都) - 32면체를 조립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함.

⑨ 따라서 〈가슴-팔〉이 있는 비행선이 있는 기평국(奇肱國)이란 '배달화백'을 열 때 반드시 동원되는 허달성(虛達城)-금성(金城)이 있었다는 반증(反證)임.

③ 모든 비행선(飛行船)이 나는 방식은: 1) 새 날개 젓기 2) 삼륜자운(三輪自運) 방식

- 각설(劫脫)

아무튼 형천(刑天)은 기평국(奇肱國)에서 황제(黃帝)에게 죽음을 당하여 '머리'없는 몸을 태백(太白)-곤륜산(崑崙山)의 북쪽에 있는 상양산(常羊山)에 장사(葬事)시켰는데, '유방(乳房)의 눈(眼) 배꼽의 입(口)'을 하고 부활(復活)하시어 황제(黃帝)에게 대항하는 탁록대전(涿鹿大戰)을 일으키게 된다.

3) 태백 곤륜산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과 신화(神話)와의 상관성

- 천구(天狗)와 관련.

하늘의 별자리에는 개(=구(狗))에 관련된 별자리가 유난히 많은데, 천구(天狗)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냄.

(*) 천구(天狗)에 대한 삼국유사 문구(*)

「혜공왕 2년, 정미년(767)에 이르러 또 천구성(天狗星)이 동루(東樓) 남쪽에 떨어졌는데, 머리가 항아리만하고 꼬리는 3척 남짓 되며, 빛은 활활 타오르는 것 같고, 천지 또한 진동하였다.」

이처럼 '별똥별'로 떨어진 후, 천구(天狗)는 계속 '태백 곤륜산'의 환형(環形)-활화산(活火山)을 향해 달린다고 믿었음 이는 천구(天狗) 활화산 속으로 들어가서 '용암여신 <바나무 허허>'의 꿈에 반영(反映)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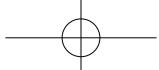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바로 이런 신화적 기억 때문에, 별똥별이 떨어지면 '소원(所願)을 비는 풍습'이 생기게 됨.

즉 그 소원(所願)이 용암여신의 꿈에 반영되고, 이는 '하늘의 뜻'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임.

고대 아시아(Asia)에는 여오지문(旅獒之文)으로 '가림토 정음(正音)'을 언지(言只)로써 시각화하였는데, 이는 사신(使臣)들이 길을 갈 때에는 '개 머리'를 고무 부구(浮具)로 띄우고 가는 관습에서 '도(道)'란 글자가 만들어졌음.

[도(道) = 旵 (쉬엄 쉬엄 갈 (착)) + '(개)머리 수(首)']

이 여오지문(旅獒之文)과 '가림토 정음(正音)'이 고려조(高麗朝) 때까지 아시아(Asia)에 널리 활용되었음을 여암은 자신의 저술에서 밝히고 있음.



4)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선생의 훈민정음도해서(訓民正音圖解敍) 전문(全文)>

훈민정음도해서(訓民正音圖解敍) 전문(全文)東方舊有俗用文字 而其數不備 其形無法 不足以形一方之言 而備一方之用也 : 동방(東方)에 옛 부터 민속(民俗)에서 사용하는 문자(文字)가 있었는데, (한 지방(地方)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수(數))’이 없고, 형태화(=형(形))하는 법도가 없어서 한 지방(地方)에서의 언어로써는 부족하였고, 한 지방(地方)에서 (문자(文字)로) 사용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았다.[해설(解說)]위 문장(文章)을 해석할 때에는 <東方舊有俗用文字 (*而其數不備 其形無法(*)) 不足以形一方之言 而備一方之用也>에서 (*)~(*)부분이 삽입구(插入句)임. 삽입구를 빼고 해석하면, “동방(東方)에는 옛부터 민속(民俗)에서 사용하는 문자(文字)가 있었는데, ‘한 지방(地方)의 말(言)’이나, ‘한 지방(地方)의 문자(文字)’로써 사용하기에는 부족(不足)하였다.”가 가장 기본적인 뜻임. 이 말은 단군세기(檀君世紀)에 기록된 가림토(加臨土)라는 것이 한국어(韓國語)를 표현하는 용도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어(言語)에 ‘발음기호 문자’를 뛰워놓고, 서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복창(復唱)하면서 서로 말을 배우되, 기억이 안 날 때, 이를 보면, ‘쌍방향으로 언어(言語)를 빨리 학습(學習)하려는 용도’로써 사용되었음을 이야기 하는 것임. 예를 들면 영어의 <coffee>를 “커피”로 써놓고, 발음기호(發音記號)를 학습키 위해서 사용하였음을 의미함. 삽입구(插入句)로 들어간 말 중에서 기수불비(其數不備)말의 해석은 “문자(文字)의 숫자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의 뜻이 절대로 아님. 이는 “뾰족한 수(數)가 없다.”고 할 때의 수(數) – 즉 ‘구체적인 방법(=수(數))’을 의미하는 것임. 다시 말하여, 가림토(加臨土)라는 것은 처음부터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의 침배객과 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어(外國語)음가(音價)’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지, 순수한 고조선(古朝鮮) 언어(言語)를 발음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제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임. 正統丙寅, 我: 정통(正統) 병인(丙寅) [A.D.1446 세종 28년]에 우리..[해설(解說)]훈민정음도해서(訓民正音圖解敍) 원문(原文)을 보면, 우리를 의미하는 我(我)란 글자 다음에, 아무런 글자가 없이, 그 다음 문단으로 경충 뛰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그 다음 단어가 세종대왕(世宗大王)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王(王) 앞에 감히 다른 문장이 앞에 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암(旅菴)선생께서는 신하(臣下)된 도리(道理)를 대해서 예법(禮法)에 어린 문장을 쓰고 있는 것임.

나중 본문(本文)에 보면, 성인(聖人)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세종대왕(世宗大王)을 칭하는 것인데, 이 성인(聖人)이란 용어를 쓸 경우는 그냥 줄을 바꾸지 않고 써도 되는 편리함도 있는 것임. 世宗大王 製訓民正音 其例 取半切之義 其象 用交易變易加一倍之法: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지으셨으니, 사용하는 예(例)는 반절(半切)의 내용(=의(義))을 취하였고, 그 모양은 주역(周易)의 교역(交易)함에서 변역(變易)이 (소성괘(小成卦)를)곱 줄로 하는 것의 법도를 활용하였다. 其文 點畫甚簡 而清濁闢翕初中終音聲 燦然具著 如一影子 其爲字不多 而其爲用之周 書之甚便.: 그 문장(文章)을 이룸은 ‘점찍고 그리기’(점화(點畫))에 심(甚)히 간단하여서, 청(淸)하고 턱(濁)함을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을 ‘열어서 합침(=벽흡(闢翕))’으로써 찬연(燦然)히 구비(具備)되어 들어나게(=저(著)) 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그림자’와 같아서 글자가 많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기에 주밀(周密)하면서도 ‘쓰기에(=서(書))’ 심(甚)히 편(便)하였다. 而學之甚易 千言萬語 繼悉形容 雖婦孺童駭 皆得以用之 以達其辭: 배우기가 심(甚)히 쉬어서 천만(千萬)의 언어(言語)라고 하더라도 가늘게(=미세(微細)하게) 다 형용(形容)할 수가 – 형태화하여 수용할 수가 있었으니, 비록 아이를 젖먹이는 (일 이외에는 별다른 지식이 없는) 아낙의 어리석음으로서도 모두가 터득하여 사용해서 그 말(=사(辭))을 전달(進達)할 수 있었다. 此古聖人之未及究竟 以通天下所無者也이는 옛 성인(聖人)이 미처 연구(研究)해서 얻지 못한 바이어서 천하(天下)를 통 털어서 없는 것이었다.[해설(解說)]여기에 <옛 성인(聖人)>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3세(世) 단군 가륵(嘉勒)시절에 삼랑(三郎)을 보록(乙普勒)을 말하는 것임. 諸國各有所用文字 高麗忠肅王時 元公主所用畏吾兒. 未知其如何 : 여러 나라에는 제각기 사용하는 문자(文字)가 있기 때문에, 고리(高麗) 충숙왕(忠肅王)때에 원(元) 공주(公主)들은 외오아(畏吾兒: 위그루(Uyghur)–문자(文字)가 소용(所用)되었으나, (고리(高麗)사람들은) 이 ‘위그루(Uyghur) 문자’를 몰라서 어찌 할지를 몰랐다.[해설(解說)]여기에 보면, 고리(高麗) 충숙왕(忠肅王)때 원(元) 공주(公主)들이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충숙왕은 (1) 영왕(營王)야광티무르(也光帖木兒)의 딸인 복국장공주(濮國長公主) 역련진팔라(亦憐真八刺)와 (2) 위왕(魏王) 아목가(阿木歌) 딸 조국장공주(曹國長公主) (3) 경화공주(慶華公主)등의 3분의 원(元)공주(公主)들과 결혼을 하였음. 같은 고리인(高麗人)의 왕후(王后)로서는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홍규(洪奎)의 명덕태후(明德太后)인 덕비(德妃)가 계심.

충숙왕(忠肅王)은 같은 고리인인 덕비(德妃)를 사랑하시어서, 복국장공주(濮國長公主) 역련진팔라(亦憐真八刺)가 몹시 질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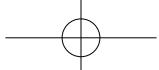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즉 복국장공주(濮國長公主)가 갑자기 죽은 충숙왕 6년(1319)에 2년 뒤에 원 중서성(中書省)에서 보낸 선사(宣使) 이상지(李常志)가 와서는 공주의 궁녀였던 호라적(胡刺赤)여자와 요리사 한만복을 가두고 공주의 죽은 원인을 심문하는 사건이 있었음. 이 때 한만복이 자복한 진술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함.

“지난 해 8월 임금이 연경궁에서 덕비와 즐겁게 노실 때 공주가 질투하다가 왕에게 맞아서 코피가 났으며 또 9월에 왕이 유련사(妙蓮寺)에 갔을 때도 공주를 때렸는데 어선부개 등이 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각설(却說)아무튼, 원(元)의 공주(公主)들이 고리(高麗)에 와서 사용한 문자는 바로 위그루(Uyghur)문자였음. 즉 원(元)나라는 위그루(Uyghur)문자를 빌어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위그루’를 회흘(回紇) 혹은 회골(回鶻) 혹은 외울(畏兀) 혹은 외어얼(畏吾兒)로 표현함.

.《고려사(高麗史)》에는 “원(元)의 사람이 고려 사람으로 하여금 외어얼(畏吾兒) 말을 가르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元)공주(公主)들에게는 외어얼(畏吾兒)– 문자가 익숙하였음.

문제는 당시(當時)에 고리(高麗) 사람들 – 특히 고리(高麗)의 궁실(宮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신(使臣)을 따라 나갔기에 <외어얼(畏吾兒)–문자>에 능숙한 사람이 전무(全無)했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무려 3명이나 되는 충숙왕(忠肅王)에게 시집온 원(元)공주(公主)들과 또 이 공주(公主)들을 모셔야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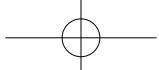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궁실(宮室) 사람들은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 의사소통(意思疏通)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임. 而以九象胥所書旅獒文者觀之皆不免荒亂無章 則正音不止惠我一方 而可以爲天下聲音大典也: 이에 구상서(九象胥)로 쓰여진 여오문(旅獒文)을 보게 하였는데, 모두 황란(荒亂)함과 절도(節度)없음(=무정(無章))을 면(免)하지 못할당정, 정음(正音)이 우리 일방(一方)에만 혜택(惠澤)을 줌에 그치지 않았으니, (정음(正音)이) 천하(天下)의 '발음기호언어(=성음(聲音)의 대전' (大典)인 것이다.[해설(解說)]여기[에 보면, 여오문(旅獒文)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여오(旅獒)는 "여행(旅行)할 때에, 인도(引導)하게 하는 '길이 잘 들린 개(=견(犬)=오(獒))' 를 뜻함. 여행할 때의 최고의 문제는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가장 곤란한 문제임. 그런데, 고리조(高麗朝) 때에는 -언자(言只)라고 표현하는 종횡(縱橫)으로 움직이는 판(板)에 문파(文具)라고 칭하는 '헬름 가스(gas)를 채운 고무-부구(浮具)'에 가림토-정음(正音)을 적어 결승(結繩)으로 묶어 서로 대화하려는 양쪽의 머리 '위'에 뛰워놓고, 쌍방향으로 서로가 말하는 것을 복창(復唱)하다가 기억 안나는 것을 환기(喚起)하면서 급속(急速)하게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이처럼 문파(文具)에 정음(正音) 문자 – 발음기호 문자를 기록하는 것을 '여오문(旅獒文)' 이라고 하였던 것임.

다시 말하면, 모르는 지역에 갈 때에 인도(引渡)하는 큰-개를 여오(旅獒)라고 하듯이, "서로 모르는 언어의 발음기호(=정음(正音))을 인도해주는 개(=견(犬)=오(獒)) 같이 든든한 문자"라는 뜻에서 여오문(旅獒文)이라고 칭하였던 것임. 따라서 가림토(加臨土)는 여오문(旅獒文)이었던 것임. 그런데, 이 <여오(旅獒)>는 상서(尚書)주서(周書) 제7장에 나오는 <여오(旅獒)>편(編)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많은 혼란을 줌상서(尚書)의 <여오(旅獒)>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은나라를 물리치자, 옛날 중국의 서쪽에 살던 여족(旅族)들이 주나라 무왕(武王)에게 「獒(오)」라는 큰 개를 공물로 바쳐 왔다. 이때 삼공(三公) 중의 하나인 태보(太保)의 지위에 있던 소공(召公)은 「여오(旅獒)」라는 글을 지어 변방의 오랑캐들이 바친 개와 같은 공물은 임금의 위신과 관련이 있으므로 받지 말기를 충고했다는 내용임.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면 덕을 잃게 되고, 물건을 가지고 장난하면 뜻을 잃을 것이니(玩人喪德, 玩物喪志)" <여(旅)>나라 사람이 바친 공물(貢物)을 받지 말라는 것임. 즉 천자(天子)의 체통(體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오(旅獒)>편(編)의 내용임. 즉 여오(旅獒)의 이미지(IMAGE)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묘사한 글인 것임. 그러나 고리조(高麗朝) 때까지 '가림토'로 사용된 것은 언자(言只)를 띠워서 '서로 모르는 언어를 인도하게 하는 정음(正音)' 이기에 여오문(旅獒文)은 매우 긍정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것임. 중요한 것은 남당유고(南堂遺稿)에 의해서 언자(言只)를 띠우는 방법이 백해여칠계(白亥與七鷄) – 즉 '흰 돼지에 일곱 개의 닭머리' 가 합해진 유형(類型)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여암(旅菴) 선생께서는 이 방법 이외에 구상서(九象胥)라는 방법이 있음을 거론(舉論)하고 있다는 것임. 백해여칠계(白亥與七鷄)는 '헬름 가스(gas)를 집어넣는 것이 (흰 돼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양한 언자(言只)들을 결승(結繩)으로 묶은 것을 일곱개의 닭머리(=칠계(七鷄))가 끌어올리고 내리는 유형의 방식입니다. 생각컨데 이 백해여칠계(白亥與七鷄) 방식은 사용하는 문장(文章)이 매우 길 때,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그런데, 구상서(九象胥)는 「이흡가지 모양(=상(象))이 함께(=서(胥)) 있다.」 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주어(主語), 목적어(目的語), 동사(動詞) 등등의 문장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9개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고, 각각 모양에 해당되는 문파(文具)이자 언자(言只)를 여기에 그 때마다 부착해서 급속하게 발음(發音)을 가림토(加臨土)–정음(正音)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짧은 문장'을 구사하기에는 구상서(九象胥)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임. 아무튼 <而以九象胥所書旅獒文者觀之>이란 문장은 <쌍방향 언어 학습기>인 언자(言只) 위에 헬름 가스(gas)가 든 문파(文具) 부구(浮具)에 붙이는 식의 표현방법을 여오문(旅獒文)이라고 하는데, 이를 구상서(九象胥)방법으로 해서 원(元)공주(公主)들이 위그루 사신(使臣)들에게 보여주면서(=관자(觀之)) '몽고 언어'를 직접 발음(發音)해서 말하고, 위그루 사신(使臣)들 역시 원(元)공주(公主)들 역시 위그루 사신(使臣)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림토(加臨土)를 띠워서 보게 하면서 복창(復唱)하여 발음하면서 말하는 방식으로 서로 언어를 소통하였다는 내용이 있음.

아무튼 천구(天狗)–<가림토(加臨土) 여오문(旅獒文)>–태백(太白)–곤륜산(崑崙山)의 모습이 삼조도구(三條道溝) 4보단(堡壘), 천부단(天符壇)이 원래 수미(須彌)–곤륜산(崑崙山) 즉 마고본성(麻姑本城)에서 취법(取法)한 것이고, 또 8장에서 황궁씨(黃穹氏)가 북간지문(北間之門)을 통해서 마고대성(麻姑大城)을 떠난 북간지문(北間之門)은 기평국(奇肱國)이 있었던 티베트 성호(聖湖) 나무초(納木錯)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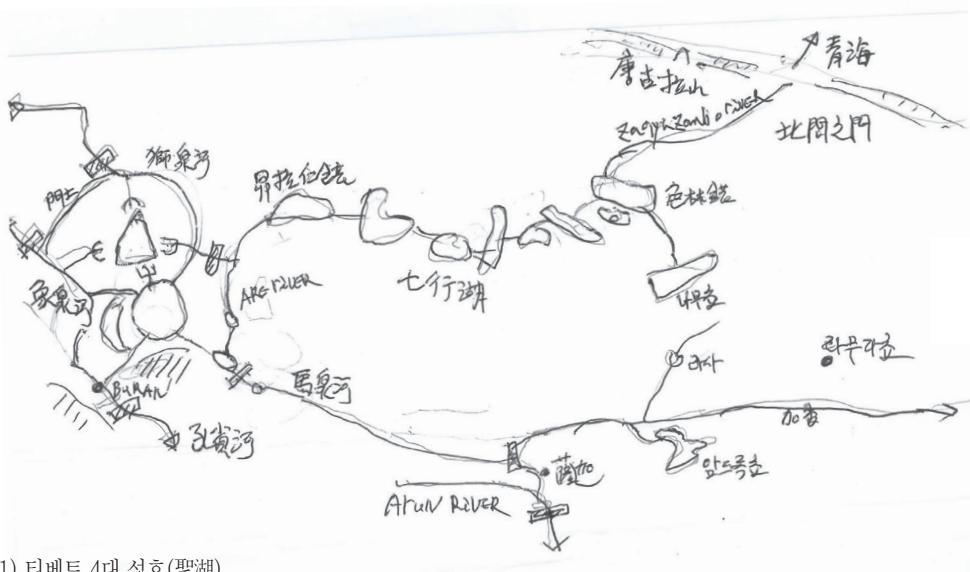
북간지문(北間之門)이라 함은 '북(北)쪽 사이'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마고대성(麻姑大城)에서 동북(東北)쪽이거나, 서북(西北)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호(聖湖) 나무초(納木錯)는 마고대성(麻姑大城: Kailas)로 부터 동(東)쪽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는 대일왕(大日王)의 여정(旅程)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마고본성(麻姑本城) 주변의 지리(地理)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고본성(麻姑本城)의 지도(地圖)



1) 티베트 4대 성호(聖湖)

티베트는 많은 성호(聖湖)들이 있음.

① 마나사로바 호수(Lake Manasarova)는 ‘태양의 호수’, 마팡옹취(Mapangyongcuo 瑪旁雍錯),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의 서천요지(西天瑤池), 불교(佛教)에서 아녹다지(阿縕達池)라는 성호(聖湖)가 있는데, 이는 불교에서 수미산(須彌山: Sumeru Mt), 중국에서 강린뽀치(岡仁寶齊, 岡仁波齊), 오늘날 카일라스(Kailas), 부도지(符都誌)에서 마고대성(麻姑大城)이라고 하는 산(山)의 정남(正南)에 있는 성호(聖湖)임.

아녹다지(阿縕達池)는 바로 지유(地乳)가 올라왔던 성호(聖湖)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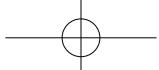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마팡옹취(Mapangyongcuo 瑪旁雍錯)는 ‘불패지존(不敗至尊)의 호수’란 뜻으로 11세기쯤 유명한 불교 수행자 미라르바와 티베트의 토착종교인 분교(苯教=빈포교)실력자 ‘나뤄번충을 설법으로 굴복시켰다는 ‘불분논전(佛勞論戰)’ 이후 성호는 ‘마쭈이취’에서 ‘불패지존의 호수’라는 뜻의 ‘마팡옹취’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음.

(cf: 원래 아녹다지(阿縕達池)는 바로 서(西)쪽에 있는 ‘달의 호수’ 락사스탈(Lake Raksas Tal) 혹은 라양취(拉昂錯)라고 말하는 호수와 붙어있으나, 우주뱀의 독액(毒液)이 뿜어나오는 사건 이후로 분리되었음.

② <암드록초(Yamdrok tso, =(羊卓雍錯)>)는 오늘날 사람들 눈에는 전갈(全蠍)로 보이지만 ‘하늘 거위’가 긴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의 호수라고 해서 <천아지(天鵝池)>를 나타낸 이름인데, 이는 마나사로바 호수(Lake Manasarova)에서 동(東)쪽으로 마천하(馬泉河)가 이윽고 야룽창포(Yarlung Tsangpo river=雅魯藏布江)로 이어지는데, 그 의미는 ‘업장(業障)의 정화(淨火) (purifier)임. 야룽창포의 중간쯤의 바로 남쪽에 수로(水路)가 연결된 호수가 바로 천아지(天鵝池)임. 이 야룽창포(Yarlung Tsangpo)는 브라마푸트라 강(Brahmaputra river)으로 이어져 기역(ㄱ)로 격여져 갠지스(Ganges river) 하류(下流)에서 합수(合水)됨. 이 호수(湖水)는 ‘분노한 신(神)들의 안식처’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야룽창포’에 신(神)들의 업장을 푸는 성수(聖水)가 흘러나오기 때문.

밑에서 성수(聖水)가 나오는 것의 한자(漢字)가 단(丹)임. 단(丹)과 단(檀)는 통용(通用)되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단국(檀國)임.

③ 나무초(Nam(u) tso) 納木錯는 ‘하늘 호수(天湖)’라는 여신 이름, 이 여신은 제석천(帝釋天)의 딸이자, 네청탕라의 아내로써 ‘푸른 몸’에



오른손에 생명수가 담긴 병(瓶), 원손에 거울을 들고, 청룡(青龍)을 타는 여신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바로 이 호수의 동(東)녁이 기평국(奇肱國)이자, 대일왕(大日王) 황궁씨(黃穹氏)가 마고대성(麻姑大城)에서 북간지문(北間之門)으로 나오는 곳임. ‘하늘 호수(天湖)’ 나무초(Nam(u) tso)는 천아지(天鵝池) <암드록초(Yamdrok tso, =(羊卓雍錯)>의 정북(正北)에 위치하며, 그 한가운데가 티베트의 도읍 나사(拉薩)이 위치함.

‘하늘 호수(天湖)’ 나무초(Nam(u) tso)는 마나사로바 호수(Lake Manasarova)의 정동(正東) 방향임. 다시 말하면 마나사로바 호수(Lake Manasarova)에서 천아지(天鵝池) <암드록초(Yamdrok tso, =(羊卓雍錯)>는 동남동(東南東) 방향에 위치함.

④ 라무라초(拉姆拉錯) : ‘암드록초’에서 북(北)쪽으로 ‘나무초’ 만큼 가는 거리만큼 ‘야릉창포’를 가면 강(江)의 남안(南岸)에 가사현(加查縣)이 나타나는데, 현(縣)의 동북으로 65Km가면 ‘곡과걸총산(曲科杰叢山)’ 큰 날개를 펼친 듯 〈불별(八角)〉 모양으로 되어 한 가운데 타원형(橢圓形)의 작은 호수(湖水)가 있음. 라무라초(拉姆拉錯)의 의미는 ‘길상천모(吉祥天母)’인데, 이는 〈가우리(Gauri)여신(女神)〉을 뜻함. 즉 ‘가우리’ 여신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再現)하는 호수이기 때문에 성호(聖湖)로써 자리매김한 것임.

이 호수(湖水)는 인간들에게 ‘미래를 알 수 있게 하는 호수’의 법력을 지니고 있음.

위 4개의 성호(聖湖) 가운데, ‘라무라초’를 빼면 모두 배달화백(倍達和白)을 열수 있는 크기임. 티베트 성호(聖湖)에서 배달화백으로 지구촌을 통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마고(麻姑)복본(復本)임.

2) 칠행호(七行湖)

나무초(Nam(u) tso) 納木錯에서 서북(西北)쪽으로 보면 세링초(Serling Co :色林錯)라는 호수(湖水)가 나타나는데, 이 호수(湖水)를 비롯해서 7개 호수가 서(西)쪽으로 마고대성(麻姑大城: Kailas)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황궁씨(黃穹氏)가 마고대성을 떠날 때에 이 7개의 칠행호(七行湖)고 운하(運河)로 연결되고 있음을 전재로 부도지(符都誌)에는 기록되어 있다.

① 세링초(Serling Co :色林錯) :

ⓐ 마고대성(麻姑大城)의 북간지문(北間之門) = 차가장보(Zagya Zangbo: 札加藏布) 강(江)

이 호수에로 서남류(西南流)해 흘러들어오는 차가장보(Zagya Zangbo: 札加藏布) 강(江)은 서장성(西藏城)과 청해성(青海省)을 가르는 당구라산(唐古拉山)의 한 가운데임.

따라서 황궁씨(黃穹氏)가 마고대성(麻姑大城)에서 북간지문(北間之門)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차가장보(Zagya Zangbo: 札加藏布) 강(江)을 타고 당구라산(唐古拉山)을 넘어 →서해(西海=청해(青海)로 해서 →북해(北海: Baikal)로해서서 사백력(斯白力: 시베리아)→태백 곤륜산의 여정(旅程)을 밟았다고 할 수 있음.

ⓑ 세링초(Serling Co :色林錯) 남(南)쪽에 붙어있는 초농(Co Ngoin: 錯鄧) 호(湖)는 한가운데 조도(鳥島)가 있는데, 이곳은 실제 천아(天鵝)들의 서식지로 유명/

② 가녕초(Gyaning Co 格仁錯)

③ 낭체초(Ngangze Co 鳴孜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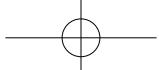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④ 탕라음초(Tangrayum Co :當惹雍錯)

⑤ 쟈리남 초(Zhari NamCo: 札日南木錯)

⑥ 타로 초(Taro Co :塔若錯)

⑦ 낭라 맹초(Ngangla Ringco :鳴拉仁錯) (= Ngangla Ringtso),

ⓑ 이 호수에는 서남(西南) 쪽의 알곡 초(Argog Co: 阿果錯)에서 발원(發源)해서 랍다(Γ) 돌아들어오는 아레-천(Are river: 亞熱-



川)이 중간에 아래쌓(亞熱鄉)이란 마을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알곡 죠(Argog Co: 阿果錯)의 위치는 바로 마고대성(麻姑大城: Kailas)과 마나사로바(Manasarova=아녹다지)의 위도(緯度) 중간쯤임. 그런데, 마고대성(麻姑大城) 정남(正南)에 있는 마나사로바(Manasarova=아녹다지)는 동(東)쪽이 불룩한 호(弧) [=] 모양으로 돌아서 북류(北流)해서 크게보면 경(口)자처럼 돌아서 인더스-강의 원류(源流)가 됨.

❷ 따라서 부도지(符都誌)에 말하듯이 마고대성(麻姑大城)에 천부단(天符壇)을 두고 네 방향으로 흐르는 이른바 사천하(四泉河)- 즉 마천하(馬泉河), 사천하(獅泉河), 상천하(象泉河), 공작하(孔雀河)가 환형(環形)-해자(垓字) 혹은 운하(運河)로 연결되었다면, 이 <환형(環形)-운하(運河)>는 칠행호(七行湖)에 맨 서(西)쪽에서 람다(Γ) 모양으로 돌아가는 아래-천(Are river: 亞熱-川)의 발원지인 <알곡 죠(Argog Co: 阿果錯)>를 경과하지 않을 수 없고, 칠행호(七行湖)는 서로 운하(運河)로써 연결되어 있고, 또 나무쵸(Nam(u) tso) 納木錯는 '탕구라산'으로부터 서남류(西南流)해 차가장보(Zagya Zangbo: 札加藏布) 강(江) 들어가는 호수가 서북(西北)쪽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링쵸(Serling Co: 色林錯)와 연결된다고 볼수 있다.

마고대성(麻姑大城: Kailas)를 중심(中心)에 두고 사천하(四泉河)을 연결하는 환형(環形) 운하(運河)에 각기 보단(堡壇)을 설치한다면 이 <환형(環形)-사천하(四泉河)-운하(運河)>에서 보면, 칠행호(七行湖)를 통해 최종적으로 '탕구라(唐古拉)산맥'에 발원하는 차가장보(Zagya Zangbo: 札加藏布) 강(江)의 시원(始源)은 '탕구라산 정상(頂上)에서 동남(東南)쪽 100Km 되는 지점 (오늘날 109번 도로)임. '카일라스(Kailas)에서 '차가장보(Zagya Zangbo: 札加藏布) 강(江)의 시원(始源)'은 방향이 동북(東北)이기 때문에, 황궁씨(黃宮氏)가 <북간지문(北間之門)>이라 칭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3) 환형(環形)-사천하(四泉河) 운하(運河)와 살가(薩迦) 운하(運河)

西藏省 地圖 : <http://parkchina.com.ne.kr/map/seojangj.JPG>

가) 환형(環形)-사천하(四泉河) 운하(運河)

① 수미산(須彌山)에서 서류(西流): 상천하(象泉河)

❷ 상천하(象泉河)는 수미산(須彌山)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서북류(西北流)하는데, 이는 수트레지 강(Sutrej river)-인더스 강(Indus river)으로 흐르게 됨.

상천하(象泉河)의 시원(始源)은 '달(月)의 호수 - 락사스탈'의 북(北)쪽임.

❸ 수미산(須彌山) 산턱에서 서(西)쪽으로 난 삼조도구(三條道溝)는 자연스럽게 상천하(象泉河) 원류와 이런(＼) 모양으로 만나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선박을 타고 산턱밑까지 들어오기 쉬웠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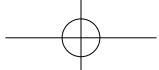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② 수미산(須彌山)에서 북류(北流): 사천하(獅泉河)

❷ 사천하(獅泉河)는 수미산에서 북류해서 인더스 강(Indus river)이 되는 하천(河川)인데, 실제의 시원(始源)은 '태양의 호수' '마나사라보 호수'에서 동(東)쪽으로 돌아서 이런 (＼) 모양으로 돌아서 북류(北流)하게 됩니다.

다 돌아서 북류(北流)하는 쪽의 서(西)쪽으로 상천하(象泉河)와의 사이에는 '문토매광(門土 煤礦) '문토(門土)'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는 아주 옛날부터 상천하(象泉河)와 사천하(獅泉河)를 연결하는 운하(運河)의 '흙'을 굽는 탄광(炭礦)과 '쇳돌(=광(礦))'이 있었다는 전설(傳說)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❸ '문토(門土)' 운하(運河)로 상천하(象泉河)를 절취(截取: cut off)하는 곳에 갑문(閘門)을 설치하고, 이를 서(西)-보단(堡壇)이라고 불렀고, 사천하(獅泉河)를 절취(截取)하는 곳에 역시 갑문(閘門)을 쳐야하며, 이를 북(北)-보단(堡壇)이라 불렀던 것임.

❹ 삼조도구(三條道溝)는 사천하(獅泉河)가 동(東)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북류하는 곳을 마치 영어의 디(D)자처럼 마고대성(麻姑大城) 순례자들에게 길을 내었을 것임.



② 사천하(獅泉河)의 실질적인 발원(發源)이 '태양의 호수' 마나사로바 호수이기 때문에, 이런 (>) 모양으로 돌아가는 곳을 수미산(須彌山) 산턱에서 마치 포크 자루를 훤 모양 즉 이런(☰-☱)으로 사천하(獅泉河)를 뚫고 나가서 칠행호(七行湖)의 서(西)쪽의 원류(源流)가 되는 아래-천(Are river: 亞熱-川)의 발원지(發源地)인 알곡 죠(Argog Co: 阿果錯)와 수로(水路)가 연결되었을 것임.

③ 수미산(須彌山)에서 동류(東流) : 마천하(馬泉河)의 원류(源流)는 레부지 죠(Rebuji Co 热布杰錯)라는 작은 연못임.

④ 환상(環狀)-사천하(四泉河)-운하(運河)를 위해서는 마천하(馬泉河)의 발원지인

레부지 죠(Rebuji Co 热布杰錯)와 아래-천(Are river: 亞熱-川)의 발원지(發源地)인 알곡 죠(Argog Co: 阿果錯)의 두 연못(연(淵))을 운하(運河)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임.

⑤ 따라서 동(東)쪽에 갑문(閘門)을 치는 것은 사천하(獅泉河)가 '마나사로바'에서 돌아나가는 곳(>)과 알곡 죠(Argog Co: 阿果錯)를 이런(☰ · ☰)모양으로 연결하는 곳(·)에 갑문(閘門)을 치고, 이를 동(東)-보단(堡壘)이라고 칭했었던 것임.

⑥ 또 '태양의 호수' '마나사로바 호수' 남(南)쪽은 지대(地臺)가 높기 때문에, 환상(環狀) 운하(運河)보다는 직접 '마나사로바 호수'에 운하(運河)을 연결하되, 중간에 작은 쿵주 죠(公珠錯)를 경우하는 것이 역시 타당할 것임.

⑦ 수미산(須彌山) 산턱에서의 삼조도구(三條道溝)는 곤(丨)자 모양으로 '마나사로바' 호수에서 북행(北行)해서 순례객들이 접근하도록 되어있었을 것임.

④ 수미산(須彌山)에서 남류(南流) : 공작하(孔雀河)는 실질적으로 '달(月)의 호수' '락라스 탈'의 서(西)쪽에서 동남류(東南流☱)해서 '부랑(Burang(普蘭縣)협곡(峽谷))'으로 하기 때문에, 환상(環狀)-운하(運河)는 결국 꺽쇠(꺾쇠) 모양으로 될 것임. 공작하(孔雀河)는 갠지스(Ganges)강의 원류임.

⑧ 공작하(孔雀河)는 '달(月)의 호수' '락라스 탈'의 바로 북쪽으로 이미 수미산(須彌山) 서쪽에서 삼조도구(三條道溝)가 꺽쇠(꺾쇠) 모양의 환상(還上)-운하(運河)에 이런 (☰) 모양으로 순례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음.

⑨ 공작하(孔雀河)와 마천하(馬泉河)를 연결하는 환상(環狀)-사천하(四泉河)-운하(運河)는 '태양의 호수' 마나사로바 남(南)쪽에 지대(地臺)가 높기 때문에, 따로 운하(運河)를 냄 수 없어서 '부랑(Burang(普蘭縣)협곡(峽谷))'에서 직접 '마나사로바' 호수(湖水)를 연결하는 운하(運河)를 만들되, '부랑(Buran(普蘭)현(縣))'이 있는 곳에는 갑문(閘門)을 쳐야 할 것임. 즉 이곳이 남(南)쪽 보단(堡壘) 중에 하나가 될 것임. 왜냐하면 '태양의 호수' 마나사로바 호수에서 갑문을 막아서 입수되는 곳은 두 방향(↙↗)이 되기 때문임.

'부랑(Buran(普蘭)현(縣))' 갑문(閘門)은 공작하(孔雀河)를 '마나사로바' 호수에로 소류(遡流:↖)시키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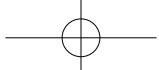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⑩ 마천하(馬泉河)쪽에서 '마나사로바' 호수에로 소류(遡流:↖)시키는 갑문은 바로 마천하(馬泉河)의 시원인 레부지 죠(Rebuji Co 热布杰錯) 호(湖)의 동남단(東南端)이 될 것임. 즉 남(南)쪽의 보단(堡壘)은 2개가 있었던 것임.

나) 살가(薩迦) 운하(運河)

: 마천하(馬泉河) → 야룽창포(Yarlung Tsangpo) → 브라마푸트라 강(Brahmaputra river) → 갠지스(Ganges river) 하류(下流)는 지나지게 돌아가기 때문에, 마고대성(麻姑大城)에서 갠지스(Ganges) 중류(中流)로 대변 들어가는 갑문 장치를 우리는 상정(想定)치 않을 수 없음.

1) 라제(Lhatse: 拉孜) 갑문, 살야(Salja(薩迦), 아룬 강(Arun river(阿潤河))

: 티베트의 성호(聖湖) <암드록쵸> 천아지(天鵝池)의 서(西)쪽 라제(Lhatse: 拉孜)의 남(南)쪽을 보면, 아룬 강(Arun river(阿潤河))이 야룽창포(Yarlung Tsangpo)과 히말리야 산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달리다가 아룬 강(Arun river)이



당제(Tingkye 定結) 현(縣)에서 갑자기 기역(ㄱ)자로 꺽이어 남류(南流)하고 있음.

(가) 살가(薩迦) 운하(運河)란?

라제(Lhatse:拉孜)와 당제(Tingkye 定結) 사이는 이런 [] 모양으로 돌아가는 도로(道路)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살자(Salja(薩迦)란 도시가 있는데, 이 명칭은 서장(西藏)불교 사자파(薩迦派 = 花教)를 일으킨 '쿵제제푸'가 1073년에 - 이는 고리(高麗) 문종(文宗) 27년으로써 왕의 4제 아들 대각국사 의천을 중심으로 거란(契丹)의 침입에 대항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팔관회(八關會)를 성대히 거행하던 시기임 - 살가사(薩迦寺)를 세워으로써 살자(Salja(薩迦)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임.

(나) '백토(白土)'의 비밀

살자(Salja(薩迦))는 티베트 말로 '회백색의 흙(=백토(白土))'란 뜻인데, 이는 '쿵제제푸'가 살가사(薩迦寺) 터를 잡자 '뒷산의 바위'가 하루밤 사이에 백토(白土)로 변했다는 전설(傳說)에 기인함. 그러나 이는 그 이전(以前)에 '살가(薩迦)운하'를 놓을 때 사용했던 백토(白土)를

갑문과 벽들 방죽을 칠거한 후에, 백토(白土)를 한곳에 모아두고, 이를 돌(石)로 덮어둔 것을 '쿵제제푸'가 알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즉 <살가(薩迦) 운하>는 삼국(三國)시대 때까지 운영되다가 고리(高麗) 초(初)에 철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라제(Lhatse:拉孜) 갑문과 당제(Tingkye 定結)갑문

: 살가(薩迦)운하가 운용되려면, 야룽창포(Yarlung Tsangpo)를 아룬-강(Arun river)쪽으로 흐르게 하는 <라제(Lhatse:拉孜) 갑문>과 또 아룬-강(Arun river)가 기역(ㄱ)자로 꺽이는 곳에서 수위(水位)를 높여서 야룽창포(Yarlung Tsangpo)를 받는 <당제(Tingkye 定結)갑문>이 필수적임.

(다) 갑문과 운하(運河)의 '신화적 유래'는 슈메르(Sumeru) 문명에서부터 은하수(銀河水)를 지상(地上)으로 끌어오는 <아눈나카의 노동>이 거론되기 때문에, 황궁씨(黃宮氏)가 마고대성(麻姑大城)에서 북간지문(北間之門)을 나서기 전(前)에 이미 건설되어 있었다고 봄이 오히려 '신화(神話)로서의 자연(自然)스러움'이 있다.

마. 대해(大海)의 자리

1) <대해(大海)>란?

가) 대해(大海)의 역할

여진인(女眞人)들이 길목해(吉木海)라고 하는 바다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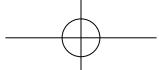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배달화백(倍達和白)을 할 때, <허달성(虛達城)-금성(金城)>의 성주(城主)인 성선(聖仙: Rishi)들을 아시아(Asia)의 민주(民主) 주권자(主權者)들이 뽑는 성호(聖湖)임.

나) 대해(大海)의 매설(埋設)

조선조 순조(純祖) 10년 (1810년)까지는 존재하였으나, 대해(大海) 고유의 해뢰(海雷)현상과 유구(琉球) 사람들이 퍼트린 호열자(虎列刺: 콜레라) 때문에, 그 이후에 매설(埋設)됨.

다) 대해(大海)와 귀허(歸墟)의 전설

(A) (*) 열자(列子) 탕문편(湯向篇) 발췌(拔萃) (*)湯又問:「物有巨細乎? 有修短乎? 有同異乎?」탕(湯)임금이 물었다. “물질은 (본질(本質)의 차원에서 보면) 크고 작음이 있는가? 또 긴 것(=장(長)=수(修))과 짧음이 있는가? (도대체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물질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革曰:「渤海



之東不知幾億萬里，有大壑焉，實惟無底之谷，其下無底，名曰歸墟[°]。八絃九野之水，天漢之流，莫不注之，而無增無減焉。 하혁(夏革)이 대답해서 말하였다.
“발해(渤海)의 동(東)쪽에는 양만리(億萬里)인자 알 수 없는 ‘큰 해자(垓字)(=대학(大壑))’이 있습니다. 실제 생각하면 이는 ‘밑바닥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 아래가 무자강(無底坑)이므로 이름하기를 귀허(歸墟)라고 합니다.

‘여덟개의 거문고 줄’이 만들어낸 ‘아홉 들판’ (=팔현구야(八絃九野))의 물인 은하수(銀河水)가 주입(注入)된다고 하더라도 더 늘어나거나 감(減)해지지도 않는 곳입니다.[해설(解說)]여기서 하혁(夏革)이 말하는 팔현(八絃)은 ‘우주(宇宙: cosmos)’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좌계는 이 팔현구야(八絃九野)가 태백(太白)-곤륜산(崑崙山)이 폭발하기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즉 1개의 태백곤륜산이 링가(lnga)산으로 우뚝 서고, 주변에 약수(弱水)의 연못과 그 밖에 화산(火山)들의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태백곤륜산을 올라가면서 ‘구름(=운(雲))’의 모습이 마치 8개의 거문고 줄처럼 태백곤륜산에 불어있고, 여기서 계속 비(雨)가 내리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봄따라서 팔현구야(八絃九野)는 바로 1차 고리를 틴 ‘약수(弱水)의 고리 연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백-곤륜산의 약수(弱水)물이 비서갑(非西岬)계곡으로 가지 않고, 모두 귀허(歸墟)인 대해(大海)로 들어와도 넘치지 않은 물은 은하수(銀河水)가 모두 들어와도 넘치지 않음을 거론한 것임。其中有五山焉：一曰岱輿，二曰員嶠，三曰方壺，四曰瀛洲，五曰蓬萊。其山高下周旋三萬里，其頂平處九千里。山之中閒相去七萬里，以為鄰居焉。(귀허(歸墟)가 있는 곳)의 가운데는 5개의 신산(神山)이 있는데, 첫째를 일컬어 대여(岱輿)라고 하고, 둘째를 일컬어 원교(員嶠)라고 하고, 셋째를 일컬어 방호(方壺)라고 하고, 넷째를 일컬어 영주(瀛洲)라고 하고, 그 다섯째를 봉래산(蓬萊山)이라고 합니다.(이 5 신산(神山)은) 바록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그곳에서 주위(周圍)를 ‘둘러 봄(=선견(旋見))’이 3만리이며, (이동하여 높은 산정(山頂)호수에서 ‘평야(平野)’를 내려다 보면) 9,000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산(山)들 간의 서로의 거리는 7만리를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인위적(人為的)으로 (이동(移動)하면) ‘이웃하여 거주(居住)’ (=인거(鄰居)) 하는 것입니다.[해설(解說)]여기 나오는 5신산(神山)은 ‘물(水)에 떠다니는 섬(島)’ – 해궁(海宮)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열자(列子) 탕문편의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오역(誤譯)함. 즉 주선삼만리(周旋三萬里)를 하나의 해궁(海宮)이 ‘돌아다니면 회유(回遊)반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해궁(海宮) 즉 섬(島)은 ‘둘레 크기’로 보는 것입니다. 하혁(夏革)이 말하는 3만리(萬里)는 각각의 신산(神山)이 ‘떠돌아다니는 해역(海域)의 범위’를 말하는 것임。

①방호산(方壺山)(=방장산(方丈山)), ② 영주산(瀛洲山) ③ 봉래산(蓬萊山)의 삼신산(三神山)의 구조는 조감도(鳥瞰圖)로 보면 〈만(凡) 자(字)〉자 모양이고 측면도(側面圖)로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써 ‘거대한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①방호산(方壺山)(=방장산(方丈山))은 ‘북두칠성’이 상징하는 ‘7가지 사회적 위기’를 관장하는 성선(聖仙: Rishi)의 〈허달성(虛達城)–금성(金城)〉에 들어가도 좋음을 결정하는 패자(沛者)의 해궁(海宮)이고,

② 영주산(瀛洲山)은 ‘연극(演劇)–굿’을 하여 ‘예술적 감흥’으로 ‘사회통합’을 하는 예술인들의 해궁(海宮)임.

(참고: 영출(瀛出)은 ‘연극의 막(幕)’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말임)

③ 봉래산(蓬萊山)은 배달화백을 하는 호수(湖水) 주변의 ‘푸른언덕(=청구(青丘)’에 주권자(=darukhan, 答兒罕)들이 종족별로 있기 때문에, 체취(體臭)를 막는 ‘쑥’과 같은 허브(herb)를 공급 준비하고 있는 해궁(海宮)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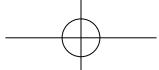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其上台觀皆金玉，其上禽獸皆純縞。珠玕之樹皆叢生，華實皆有滋味，食之皆不老不死。所居之人皆仙聖之種，一日一夕飛相往來者，不可數焉。

(오신산(五神山) 위의 대각(臺閣)은 모두 금옥(金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의 조류(鳥類)와 짐승들은 모두 흰빛을 띠고, 구슬과 옥(玉)들 같이 빛나는 나무들이 총생(叢生: 모여 옹기종기 나있는 것)하였는데, 열매는 모두 맛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모두가 불로장생(不老長生)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선(神仙)과 성인(聖人)으로 구분되는 사람들로써 하루 혹은 밤사이에 서로 오신산(五神山)을 서로 왕래하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而五山之根，無所連著，常隨潮波上下往還，不得暫峙焉。仙聖毒之，訴之於帝。帝恐流於西極，失羣聖之居，乃命禹疆使巨鼈十五舉首而戴之。迭爲三番，六萬歲一交焉。

：오신산(五神山)의 뿌리는 (대해(大海)의 바닥과) 이어져 닿는데가 없어 언제나 파도가 침이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며, 잠시도 ‘고요히 우뚝 서있지(=치(峙))’ 않습니다. 신선(神仙)들과 성인(聖人)들이 이를 해독(害毒)으로 알아 상제(上帝)에게 호소(呼訴)하였던 것입니다. 상제(上帝)가 (오신산(五神山)이) 서극(西極)으로 유실(流失)될 것 두려워하고, (로 인(因)해) 뜻 성인(聖人)들이 거하는 것을 잊을까 바, 이에 북극해(北極海)의 신 우강(禹疆)에게 명(命)을 내려, ‘거대한 자리’ 15 마리의 머리로써 이개(=재(載))하되, 3번에 걸쳐서 경질(更迭)하지만, 한 교대(交代) 기간은 6만년이 되게 하였습니다.

五山始峙。而龍伯之國。有大人。舉足不盈數步而暨五山之所。一釣而連六鼈。合負而趣。歸其國。灼其骨以數。是岱輿員嶠二山。流於北極。沈於大海。



오신산(五神山)이 처음으로 고요히 우뚝 서 있는(=峙) 시절에 용백국(龍伯國)에 한 거인(巨人)이 다리를 들어 몇 걸음하지도 않아서 오신산(五神山)이 있는 곳에 다다라. 한번 낚시질하여 '여섯 자라를 연(連)이어 잡아서 한가번에 등(背)에다 지고 달려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 뼈를 태워 점(占)을 쳤습니다. 이 일로 대여(岱輿) 원교(員嶠) 두 산은 북극(北極)으로 흘러서 대해(大海)에 가리앉았습니다.

仙聖之播遷者巨億計. 帝憑怒, 侵減龍伯之國使[𩔗 + 𠂔]. 侵小龍伯之民使短. 至伏羲神農時, 其國人猶數十丈.

(두 산(山)의) 신선(神仙)과 성인(聖人)들이 이동하는 자가 거억(巨億)에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상제(上帝)가 크게 분노하여 용백국(龍伯國)을 침식(侵蝕)시켜 줄어들게 해서 좁게 하였으며, 용백국(龍伯國) 백성들을 점차 줄어 키가 줄어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희(伏羲) 신농(神農) 때에 이르러서도 그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삼십(三十)장(丈)이 되었습니다.

(B) 용백국(龍伯國)의 위치.

① 알래스카의 어원은 알류트족의 "Alyeshka, (섬이 아닌 땅)"임

: 이는 용백국(龍伯國)이 알래스카(Alaska) 땅이긴 하지만, 고대에는 '알래스카 반도와 알류산열도(Aleutian Islands)'를 포함하는 것임을 뜻함. 즉 땅이 줄어들게 된 곳이 알래스카 반도와 알류산열도(Aleutian Islands)'인 것을 반증(反證)하는 것임.

② 고리사(高麗史) 최해열전(崔灝列傳)

최해(崔灝: 1287~1340)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때 문인(文人)인데,

(A) 최해의 자는 언명보(彦明父)요 또는 수옹(壽翁)이니 경주사람이며 문창후, 최치원(文昌侯崔致遠)의 후예이다. 아버지 최백륜(崔伯倫)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벼슬이 추관(秋官 - 법관)을 거쳐 민부 의랑(民部議郎)에 이르렀고 원나라에서 고려 왕경 유학 교수(高麗王京儒學教授) 벼슬을 받았다.

(B) 후에 성 남쪽 사자산(獅子山) 아래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예산은자전(貌山隱者傳)》을 지었다. 그 전에 이르기를 "은자(隱者)의 이름은 하계(夏屆 - 해음의 뜻) 혹은 하체(下逮 - 역시 해음의 뜻)라고도 하며 성은 창고(蒼槐 - 채음의 뜻)인데 용백국(龍伯國) 사람이다. 본래 두자성(覆姓)이 아니었으나 은자로 된 후에 중국 발음의 합음에 따라 성까지 고친 것이다.

(C) 태공조주(太公釣周)-최해(崔灝)의 시(詩) 세계

: 강태공(姜太公)이 주(周)나라를 낚다.

當年釣鯉無鉤(당년파조조무구) ; 낚시질 마친 뒤에 낚시대를 보니 바늘이 없어라.

意不求魚況釣周(의불구어황조주) ; 물고기를 구(求)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주(周)나라를 낚을 뜻이 있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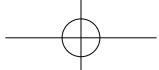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終遇文王真偶爾(종우문왕진우이) ; 종내(終乃)에 문왕(文王)을 만남은 진정 우연(偶然)이라네.

此言吾爲古人羞(차언오위고인수) ; 이런 말 하는 우리네는 옛 사람의 수치로고!!

[해설(解說)]

대해(大海)에 삼신산(三神山)이 떠 있는 해궁(海宮)으로 있음은 물론 용백국(龍伯國)이 알래스카(Alaska) 지역임을 고리(高麗) 조선(朝鮮) 사람들은 '거주인'들이 계속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선농단(先農壇)은 밑변이 사각형(口)으로 되어 있으되, 향나무 등을 심어서 측면도로 보았을 때에, 삼각형(▲) 모양의 신산(神山)의 구조가 되게 한 후에, 임금과 함께 농사(農事)를 짓는 의식(儀式)을 치르는 것이며, 이때 참석한 사람들이 먹는 탕이 '설령탕'의 어원이 되는 것임. 아래 '성종실록' 기록은 〈신산(神山)-해궁(海宮)〉과 선농단(先農壇)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래되는 노래'가 표현되어 있음.



(C) 성종 실록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윤1월 22일(정해) 1번째 기사 “선농에 친히 제사하다.” 조(條)

〈1〉

- 전략(前略)-

제사를 마치고 대차(大次)에 돌아와서 날이 밝은 다음 오퇴례(伍推禮)를 행하고, 관경대(觀耕臺)에 올라서 밭갈이를 구경하였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 ·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가 칠퇴례(七推禮)를 행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겸(魚世謙) ·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약동(李約東) ·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 · 사간(司諫) 김심(金謙) 등이 구퇴례(九推禮)를 마치자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이 서인(庶人)을 거느리고 차례로 1백 묵(畝)를 갈기를 마쳤다. 밭이랑을 다스리는 자가 농가(農歌)를 부르면서 밭이랑을 다스리기를 마치고는, 봉상시 정(奉常寺正)이 늦벼(穜)와 올벼(穆) 씨를 받들고 뿌리기를 마쳤다. 임금이 대차(大次)에 돌아와서 전교하기를,

“ 선농(先農)에 제사하는 것은 경사(慶事)이고, 또 반사(頒赦)의 전례(前例)도 있으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심회(沈渾) · 윤필상(尹弼商) · 윤호(尹壕)가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참고: 대차(大次)는 ‘중요한 의례(儀禮)를 할 때, 중간에 쉬는 큰 장막(帳幕)을 뜻함)

祭畢還大次, 平明行伍推禮, 升觀耕臺觀耕。月山大君婷 領議政尹弼商 領敦寧尹壕行七推禮, 兵曹判書魚世謙 吏曹參判李約東 大司憲朴安性 司諫金謙等行九推禮 誓, 奉常寺副正帥庶人, 以次耕百畝, 畢治畝者, 唱農歌 治田畝畢, 奉常寺正捧穜穆之種播之 誓, 上還大次傳曰: “祀先農, 慶事也。且有頒赦前例, 其議于領敦寧以上。”沈渾 尹弼商 尹壕僉議啓曰: “上教允當。”

〈2〉

대가(大駕)가 돌아오자 기로(耆老) · 유생(儒生) · 여기(女妓)들이 차례로 가요(歌謡)를 올렸는데....

沈渾 尹弼商 尹壕僉議啓曰: “上教允當” 駕還, ①耆老 ②儒生 ③女妓等以次獻歌謡

(참고: 대가(大駕)가 돌아온 곳(=駕還)은 대차(大次)이며, ① 기로(耆老) ② 유생(儒生) ③ 여기(女妓)들이 와서 ‘가요(歌謡)를 올린 곳’은 바로 대차(大次) 앞임.)

— 중략(中略)—

〈3〉

여기(女妓)의 가요는 이러하였다.(其女妓歌謡曰:)

——중략(中略)——

{여기(女妓)가 말하기를} “ == = 황당한 말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구호(口號)를 올립니다.”

(不度荒詞, 上進口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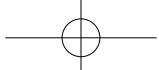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해설(解說)]

여기(女妓)들이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합창(合唱)하여) 노랫말(口號)을 올릴 때의 [=상진구호(上進口號)] ‘노랫 말’은 고리(高麗)조(朝) 때부터 여기(女妓)들 끼리 지속적으로 구전(口傳)해온 노래임.

(*)이하(以下) 직접 해석함 (*)

난여회가자동경(鑾輿回駕自東坰)

: 난여(鑾輿)가 거마(車馬)를 동녘 들에서 (대차(大次)로) 돌리니



기불청단경예성(祇祓青壇慶禮成)

: '지신(地神)에게 하는 푸다거리'는 푸른 선농단(先農壇)에 즐거운 예(禮)를 이루었네.

만성동환천재회(萬姓同權千載會)

: 만백성 천년(千年)을 역사를 같이 살어 기뻐하는구나!

사방다가팔풍청(四方多稼八風淸°)

: 사방에 모두 농사(農事) 잘되고, 팔풍(八風)이 맑기만 하여라.

육오회비영선장(六鰲屬鳳迎仙仗)

: 여섯 큰 자라, 힘쓰고 힘써 선장(仙仗)을 맞이하러 가도다.

쌍학편선하채정(雙鶴蹁躚下彩旌)

: 쌍학(雙鶴)은 **하산(下山)하라**는 채색(彩色)되는 정기(旌旗) [하채정(下彩旌)] (취한 듯) 비틀거리며 도는구나!!

최행차신섬성사(最幸此身瞻盛事)

: 풍성(豐盛)한 행사 이 몸이 직접 보니 가장 행복하여라.

회장가무하승평(喜將歌舞賀昇平)

: 기쁘게 춤추고 노래를 계속해 태평성대를 (물에) 오르게 하겠나이다.

[해설(解說)]

조선조의 선농단(先農壇) 의례의 모델(model)은 <대해(大海)>에서 봉래산(蓬萊山) 해궁(海宮)에서 허브(herb)를 청구(青丘)에 옮기는 것을 기본(基本)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자(漢字) <화(回)>자 모양으로 가운데 선농단(先農壇)을 두고, 그 주변에 오곡(伍穀) 농지(農地)를 두고 임금 이하 관료 및 백성이 상륙(上陸)해 농사를 하고, 각기 자신의 차(次: 장막)에 돌아와서 가무(歌舞)와 '설령탕'을 여민동락(與民同樂)하는 의례(儀禮)였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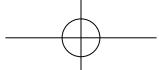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또 이런 의례(儀禮)를 지휘하는 '2개의 거대한 학(鶴)'의 정기(旌旗)를 방장산(方丈山)에서 흔들되, 선농단(先農壇)주변에서 '채색(彩色)-광(光)'을 쏘아(projection) 화려함을 강조하는 것도 곁들여졌음을 알 수가 있음.

2) 대해(大海)의 주변(周邊) 지리(地理)에서 알아야 할 사항

(가) 갑문(閘門)의 구조

: 갑문(閘門)을 조선조 때에는 목책(木柵)으로 칭하였다.

- ① 벽창호(碧瀆)과 창성(昌城)의 소(牛)가 변음된 것인데, 이 벽창우(碧昌牛)를 갑문에서 유압(油壓)을 만들도록 '끄는 사람'을 견우(牽牛)라고 칭하였음.
- ② 유(U)자 모양의 광물유(클로르포룸)가 있는 갑문 레일(rail)과 '그 사이에 있는 갑문의 스케이트(skate)날 (cf: 썰매의 어원(語源)은 설마(雪馬)가 아니다.)
- ③ 유(U)자 레일(rail) 주변에 <비(非)>자 모양의 침목(枕木)이 나있고, 벽창우(碧昌牛)가 만든 유압으로 긴 지렛대가 침목을 밀어서 가는 식으로 이동함.
- ④ 부회환(釜回換)은 이두(吏讀)로써 ['가마솥 돌린 미닫이' → '감아 솔돌린 미닫이']의 의미로 이는 오늘날 기차(汽車) 바퀴 돌리듯 유압으로 돌리는 조선조



공학용어였음.

- (*) 참고 : <대해(大海)>에서 북류(北流)하는 소하강(蘇下江)의 동(東)쪽 두문(斗門: 갑문 격납고)이 온천(溫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세종실록은 기록.
- ⑤ 갑문 바퀴는 갑문으로 막은 상류(上流)와 하류(下流)를 지하(地下)로 연결한 마치 ‘딱정벌레’처럼 생긴 <맨홀(manhole) 덮개>를 밟아서 불통(不通)지나쳐서 통과(通過)를 결정 짓는다.
- ⑥ 갑문은 대박(大舶)으로 전환되는데, 갑문으로 사용될 때에는 물(水)을 아랫 부분에 집어넣고, 또 대박(大舶)으로 전환될 때에는 내장된 수백개의 용미거(龍尾車: Archimedes Screw)가 활용해서 물(水)을 퍼낸다.
- 대박(大舶)으로 전환할 시는 갑문 바퀴를 ‘접는 우산(雨傘)’처럼 감싸며, 양쪽에 초대형 즙(楫: 노(櫓) 주걱)이 나와서 유압에 의해 저어지면, 또 침목(枕木)에 밀어나가는 ‘지렛대’에는 ‘오리 빌’이 부착된다.

(나) 내계(內階) 갑문과 각종(各種) 소보(小堡) 갑문

- ① 내계(內階: 안(内)에 있는 계단(階段)이란 의미)는 오늘날 승강기(昇降機)를 의미함.
- 즉 갑문(閘門)이 상하(上下)로 2층(層)으로 되어 있어서 갑문을 이고 있는 형태로 아래의 갑문을 열고, 내계(內階: 승강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를 뜻함.
- (참고: 자미원(紫微垣)의 내계(內階))
- 아래 층(層)의 갑문을 <수교하(水橋下)–소보(小堡)–갑문>이라고 함.
- ② 강(江)을 육교(陸橋)식으로 가로 지르는 허공교(虛空橋)는 ‘태사선(太梭船)’으로 되어 있고, <활강(滑降)–착(捉)>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형태임.
- ③ 2층의 갑문은 <태사선(太梭船)–조임(鎖)–소보(小堡)–갑문>으로 허공교(虛空橋)로 들어온 ‘태사선(太梭船)’을 그 바깥에서 바싹 조이는 역할을 함.
- (참고: ‘태사선’의 측면도는 (＼_____ π _____ π _____ J) 인데, (π)부분이 하나의 <태사선(太梭船)–조임(鎖)–소보(小堡)–갑문>이 와서 ‘조여주는 위치’임.
- ④ 태사선(太梭船)은 L.S.T(landing ship tank)처럼 선두(船頭) 문(門)과 선미(船尾) 문(門)을 올리고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음.
- ⑤ 2층 수로(水路) 밑을 길게 선박이 가는 내계(內階)는 ‘비읍(卑)자 터널(tunnel)’이 바로 내계(內階)임.
- ⑥ 이런 내계(內階)의 위쪽 2층(層) 수로(水路)에는 양(兩)쪽으로 내계(內階)에 물(水)을 주입(注入)하고 멈추기 위한 <승강(陞降)–문턱(門檻)–소보(小堡)–갑문>이 역시 자리잡게 됨.

(참고: 소보(小堡)라는 용어는 전래되는 용어로써 세종실록에 김종서(金宗瑞) 장군이 장계(狀啓)에서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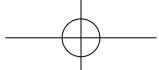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3) 대해(大海)의 간략한 지도 작성에 유의할 사항

(참고: 흑룡강성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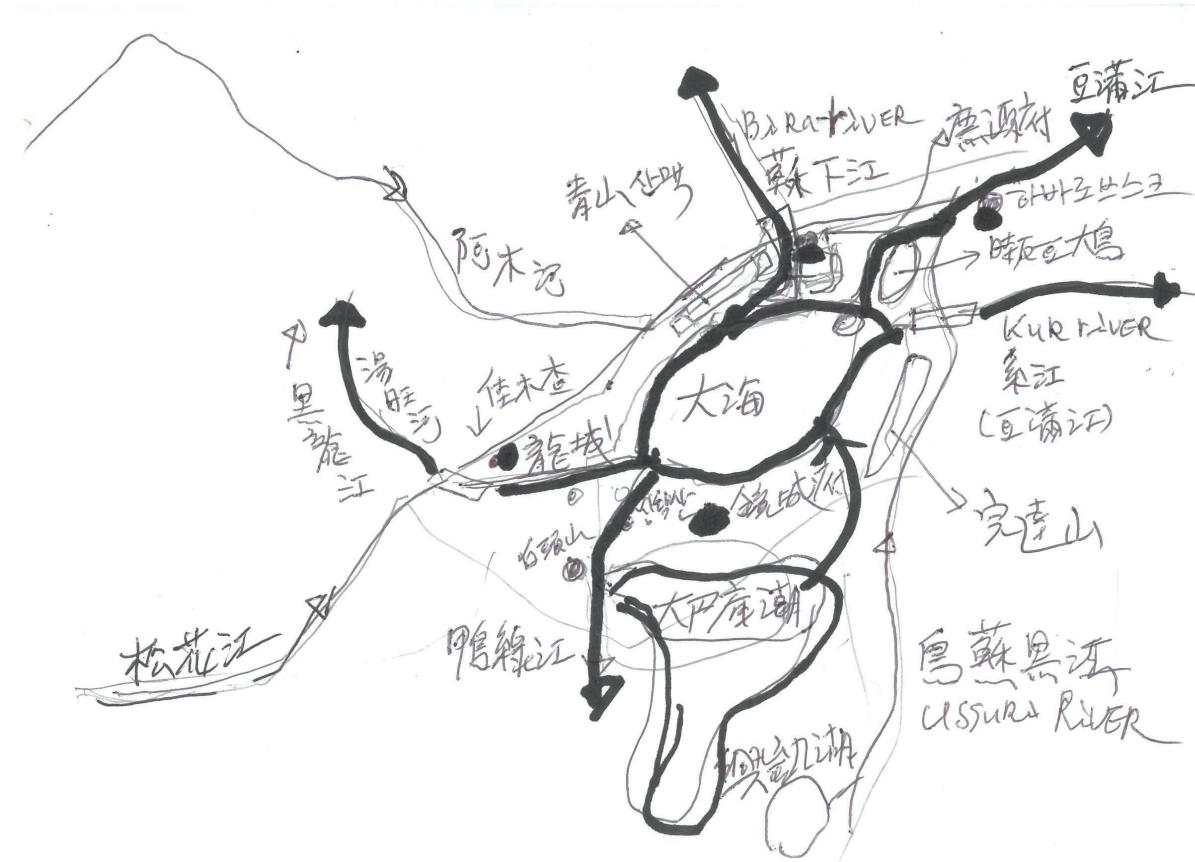
<http://parkchina.com.ne.kr/map/huklong.JPG>

(가) 세종실록 지리지와 ‘조선인이 만든 地圖’ 및 현실지를 맞추어본 地理

- ① 대해(大海)에서 북문(北門)으로 나와서 허공교(虛空橋)로 송화강을 건너뛰어 비라–강(Bira river)과 연결되는 것을 소하강(蘇下江)이라고 칭함
- ② 대해(大海)에서 동(東)쪽으로 오소리강(烏蘇里: Ussuri river)을 직접 연결되어서 회령부(會寧府)로 나가는 ‘북류 두만강’
- ③ 대해(大海)에서 동문(東門)으로 나와 오소리강(烏蘇里: Ussuri river)을 허공교(虛空橋)로 건너 뛰어 코르–강(Khor river: 계강(系江: 연해주 지역을 모두 ‘잇는(=계) 강(江)’ 이란 의미임.
- ④ 대해(大海)에서 서문(西門)으로 길게 나와서 가목사(佳木斯) 시(市) 서(西)쪽으로 송화강을 허공교(虛空橋)로 건너 뛰어 탕왕하(湯王河)와 이어지는 것을 흑룡강(黑龍江)
- ⑤ 오늘날 칠성남자산(七星拉子山)인 또 다른 백두산(白頭山)과 쌍암산(雙鴨山) 사이로 해서 계단식 갑문들을 통해서 대해(大海)에 부족한 ‘짠물’을 공급하는 칠대하(七台河=옛 倭肯河)와 요력하(搖力河)의 상류를 갑문으로 막아서 소금땅의 짠물이 섞여서 [대파고호(大巴庫湖: 큰뱀(大巴)처럼 또아리를 튼 ‘짠물 곳집 호수’라는 의미임)]를 지나서 다시 계단식 갑문을 통해서 남류하는 압록강(鴨綠江)



(나) 대해(大海)의 간략한 지도



(다) <경성(鏡城)의 용성(龍城)>의 길이 127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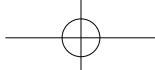
대해(大海)의 서문(西門)으로 송화강을 허공교(虛空橋)로 건너뛰어 탕왕하(湯旺河)와 입맞추는 <흑룡강(黑龍江)>의 내계(內階: 비음(阨)자 터널)의 길이는 미군사지도(1950년도 작성)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무려 127Km나 됨.

2층 수로(水路)의 양쪽 제방둑 위에 대해(大海)에 참여하는 아시아(Asia) 각국의 성선(聖仙: Rishi)과 여성선(Krittika)의 궁전과 누각(樓閣)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용(龍)과 같다라는 의미로 <경성(鏡城)의 용성(龍城)>라고 함.

(라) 약수(弱水)로 칭해졌던 [눈강(嫩江) ← 남옹하(南翁河)]는 왜 봉황(鳳凰)이 사당(沙棠)–열매를 입(口)에 물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중력(重力)을 발휘하는 것일까?

① <열자(列子) 탕문편(湯向篇)>에 이르듯이 대해(大海)가 귀허(歸墟)로써 북극해(北極海)로 빠져버릴 때에는 결국 <경성(鏡城)의 용성(龍城)>의 127Km되는 내계(內階: 비음(阨)자 터널(tunnel))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때 들어오는 송화강 물(水)의 가장 긴 원류(源流)를 발해국(渤海國)에서는 약수(弱水) [=구다천(句茶川)–약수(弱水)]으로 칭하고 있음.

② 개마대산(蓋馬大山=여량산맥+대홍안령산맥)과 소홍안령산맥이 삿갓(人)처럼 만나는 곳에 있는 이勒호리–산(伊勒呼里 山: 800m~1088m)인데, 이 산맥은 아목하(阿木河: Amur river)과 눈강(嫩江)의 시원인 남옹하(南翁河)이 기역(ㄱ)자 모양으로 돌아나가며, 그반대 쪽에 아목하(阿木河) 원류들이



북류하는 분수령임.

이륵호리-산(伊勒呼里 山)은 ②몽고어로 이륵(伊勒)이 “상(上)”, 호리(呼里)가 “송탑(松塔)”의 의미라고 하고, ③또 만주어로도 ‘송자(松子:소나무)라고 함.

(참고: ② 伊勒呼里 是蒙古語, 伊為“上”, 呼里為“松塔” ③ 伊勒呼里為滿語, 意為松子)

결국, 이륵호리-산은 산정(山頂)능선에 ‘높은 소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산(山)의 특성을 띠고 있음.

산(山)이 높기 때문에, 번개가 많이 치는 것을 고려하면, 약수(弱水)의 비밀은 [번개+소나무 숲]이 관련된 어떤 현상이라고 신화적(神話的)으로 재구할 수 있다.

③ 이처럼 약수(弱水)가 〈격공(隔空)–중력(重力)〉 현상을 띠는 이유를 [번개+소나무 숲]으로 신화적으로 재구하는 것은 이륵호리(伊勒呼里) 산맥의 고칭(古稱)이 오환산(烏丸山) 혹은 토흠산[吐紇山: 실매듭(=흘(紇))을 토(吐)해내는 산(山)]으로 불리어진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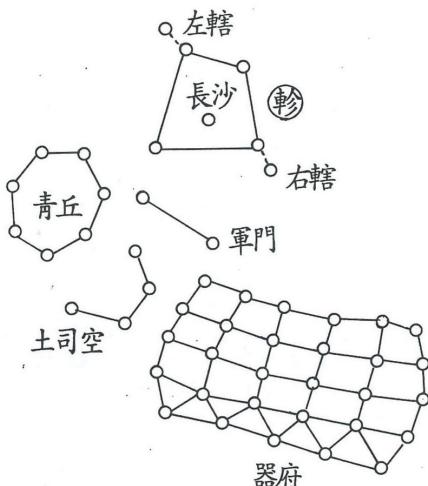
(참고: 伊勒呼里 山嶺, 古稱 “烏丸山”/ “吐紇山”)

즉 [번개+소나무 숲]으로 형성된 물(水)은 물 밖의 격공(隔空)진 지역에 대해서 중력(重力)을 발휘하는 어떤 기운(氣運)–다발(flux)의 실매듭 [=흘(紇)]을 토(吐)해내는데, 그 영향권이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三足鳥)의 구(球)=환(丸)〉를 의미하는 오환(烏丸)을 형성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④ 이런 규명은 태백–곤륜산의 흘흘입연(屹屹立然)하는 맹가(Linga)–산에도 빽빽이 ‘소나무 숲’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신화적(神話的)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마) 대해(大海) 청구국(靑邱國)이 〈진(軫): 수레 뒤턱 나무〉 수(宿)로 나타남

[진수(軫宿)의 별자리]



: 청구(靑丘)는 배달화백(倍達和白)을 할 때에, 천독(天毒)들이 않는 ‘허브(herb)의 푸른 언덕’을 의미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선(聖仙: Rishi)들을 뽑는 〈대해(大海)〉의 청구(靑丘)이므로 이를 특별히 청구국(靑邱國)이라고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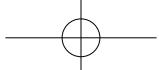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진(軫)수(宿)가 의미하는 ‘브레이크(break)’에 청구국(靑邱國)을 그려넣은 것은 ‘엄사수(嚴 𩫓水)’가 아목하(阿木河: Amur river)이기 때문

① 토사공(土司空)과 기부(器府) : 이는 대해(大海)주변에 내계(內階: 비읍(匪)자 터널), 각종 소보(小堡) 갑문들의 설치에 ‘대규모 토목공사’ 와 또 이에 필요한 삼신산(三神山), 갑문(閘門)등의 도구(道具)들 (=기(器))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함.

② 군문(軍門): 대해(大海)와 송화강(松花江) ‘사이’의 산맥을 청산(青山)이라하는데, 여기에는 ‘경병(冥兵)’이라는 육부군(六部軍) ‘이 살고 있기 때문임. 청산별곡(青山別曲)은 대해(大害)를 지키는 ‘경병(冥兵)’들의 군가(軍歌)’ 알리 ‘는 몽고어로 “죽여라”

③ 〈진(軫)〉의 마름모 속의 장사(長沙)는 127Km나 나가 텅왕하(湯旺河)에로 나가는 ‘경성(鏡城)의 용성(龍城)〉에서 내계(內階: 비읍(匪)자 터널을 상징

④ 헬(轄)–이는 ‘수레’에서 바퀴(=륜(輪))를 마감하는 ‘굴대 끌’ 세(書)에 대한 ‘빗장’임.



(천문류초(天文類抄): 主王后 左轄爲王者同姓 右轄爲異姓)의 의미

마) 구다천국(句茶川國)의 비밀

(1) '격공(隔空)–중력(重力)'의 콘트롤(control)

[남옹하(南翁河)→눈강(嫩江)→송화강(松花江)→아목하(阿木河)]로 이어지는 하수(河水)는 왜 구다천(句茶川)–약수(弱水)가 의미하는 격공(隔空)–중력(重力) 현상을 띠지 않는 것일까?

이는 12한국(桓國) 중에 하나인 구다천국(句茶川國)에서 '격공(隔空)–중력(重力)'을 발휘하는 구다천(句茶川)–약수(弱水)에 대해서 어떤 비밀스런 방법을 통해서 '격공(隔空)–중력(重力)'을 발휘하는 것을 무효화(無效化)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굿다(句茶)라는 처방에 따라서 '격공(隔空)–중력(重力)'이 무효화(無效化)되어 약수(弱水)의 '격공(隔空)–중력(重力)'을 완벽히 콘트롤(control)하는 노우–하우(Know–how)를 지닌 나라임을 알 수 있다.

(2) 마고지나(麻姑之那)의 최초의 나라는 구다천국(句茶川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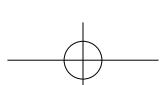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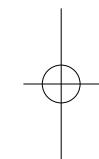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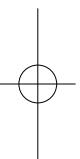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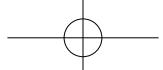
황궁씨(黃穹氏)의 첫째 아들 유인(有因)이 바로 12한국(桓國) 중의 하나인 구다천국(句茶川國)의 첫 환인(桓因)이시고, 마지막 환인(桓因)이 바로 배달국(倍達國) 연맹을 결성하여 거발환(居發桓)–환웅(桓雄)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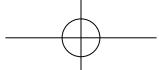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3) 2개의 곤륜산 – 수미(須彌)곤륜산과 태백(太白)곤륜산–이 존재한 영향으로 생긴 난문(難文) : [삼성기전(三聖紀全) 하편(下篇)]

古記云 波奈留之山下有桓仁氏之國 天海東之地 亦稱波奈留之國 其地廣 南北五萬里 東西二萬餘里 :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파내류(波奈留)산의 아래에 환인씨(桓仁氏)의 나라가 있었다. 천해(天海)의 동(東)쪽에도 역시 파내류(波奈留)라고 칭(稱)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땅이 넓어서 남북(南北)이 5만리되고, (*) (두 파내류산(波奈留山)에서) 각각(各各) 동서(東西)가 2만여리였다.

[해설(解說)]

얼핏보면 환인씨의 나라가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여리에서 남북으로 길쭉한 것으로 볼수 있지만, 두 파내류산(波奈留山)은 수미(須彌)–곤륜산과 태백(太白)–곤륜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파내류산 사이의 2만리를 중심(中心)으로 각각 동서(東西)로 2만 3천리 정도가 되기 될. 따라서 계산하면 [2만리+2X(2만3천리)=6만6천리]로 계산되어 동서(東西)가 남북보다 더 길쭉한 모양이 될.





2 강(講) : 마고(麻姑)의 신(神)들의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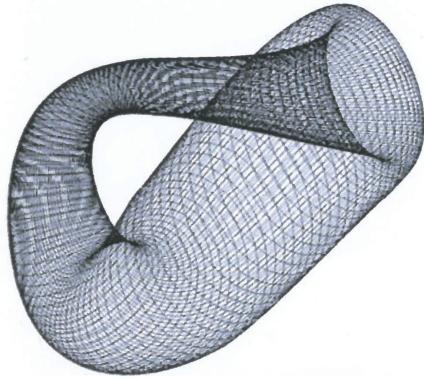
- 인류의 역사는 아수라(阿修羅)와 천인(天人)의 줄다리기

가. 우주 세 자매 여신에 대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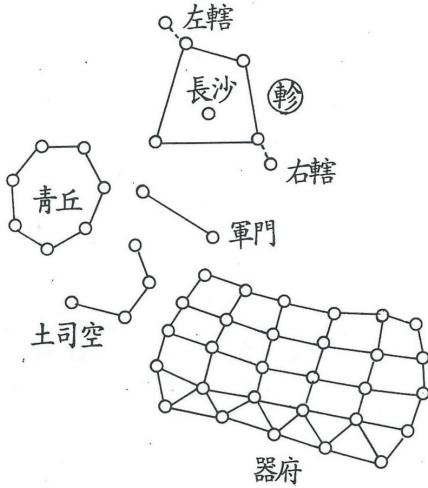
1) 마고(麻姑) [=천모(天母) 아부카허허(阿布卡赫赫)]의 법신(法身)의 신비

(가) 양(兩)쪽 다리 : '오른 빌'이 "더덩!(登德)"으로 음악(音樂)소리를 내며, 하늘로 '나르는 여신(女神)'으로 이 때 '원빌'의 발바닥 용천혈(湧泉穴)을 정수리의 통천혈(通天穴)로 뽑아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클라인 병(瓶)'과 일반 병(瓶)을 교호적인 작용을 하게 됨.

[클라인 병(瓶)에 대한 그림]



[천문류초(天文類抄)의 저(氏: 근원)수(宿)의 천유(天乳)]



① 마고(麻姑)가 승천(昇天)할 때의 혼적: 이는 승천(昇天)하는 지역 주변을 대동(帶同)하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승천(昇天)할 때에 '우뚝 솟은 산(山)'을 형성하게 됨. 수미산(須彌山)을 마고대성(麻姑大城)이라 일컫는 까닭이 여기 있음.

② 용천혈(湧泉穴)을 통천혈(通天穴)을 뽑아낸 영향으로 지유(地乳)가 '마나사로바 호수'에 올라오게 됨.

(나) 4뒤집혔을 때'의 피(血) = '은하수(銀河水)', 살갗(=부(膚)) '버드나무 껍질'임

(다) 마고(麻姑)의 가슴: 허브(herb)가 있는 화원(花園),

(라) '마고의 눈물'에서 탄생한 호안-신(護眼-神) '고슴도치 신(神)' 저구루(者古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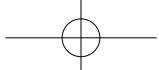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소단우시하(芍丹烏西哈) (함박꽃별=묘(昴)성(星) (=플레이테스)의 빛

(마) 마고(麻姑)의 무기 : 때(=구(垢))

2) 별자리 여신 궁우마마(穹宇媽媽): 와러두허허(臥勒多媽媽)

: 운모(雲母)로 화려한 치장(治粧)을 하며, '광(光)케이블'과 같은 모든 별(星)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자작나무 껍질'로 이루어진 그물을 가짐.

(*) 참고: "왜 우리 신화인가?" P164



“창세 여신 중 하나인 별자리 여신 ‘와라두허허’는 사람의 몸에 새 날개를 하였는데, 몸에는 백색 날개옷을 입었다고 묘사된다. 그래서 샤만들은 이 신(身)이나 별자리신에 제사드릴 때에는 반드시 흰색 치마를 입어야했다. 만주족에게 백색은 인간의 삶에 빛을 주는 해와 달과 별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3) 지모신(地母神) 용암여신 바나무허허(巴那吉額姆)

- 가) 잠을 자면서 ‘우주의 꿈’을 꿈.
- 나) 바나무허허(巴那吉額姆)의 마음의 신(神) 불(火)의 여신 투무(突姆): 쳐쿠마마[車庫媽媽] = ‘그네 여신’으로 별칭되며, 삼태성(三台星)의 주인되는 여신(女神)임.

나. 마고(麻姑)가 최초로 날아간 곳은 ‘안드로메다 은하(銀河)’가 하나의 별로 나타난 규성(奎星)임

- 1) 거북 할아범: 염정성(廉貞星) 까시야파(Kashiyapa)과의 논쟁(論爭)
: 까시야파(Kashiyapa) 모든 선신(善神)과 아수라(阿修羅: 전쟁을 좋아하는 신(神)들)의 조상(祖上)

2) 초청되는 신(神)들의 기억? “지구는 어디인가?”

- (*) 테아타우아칸(Teotihuacan) : 신(神)이 분신자살(焚身自殺)하면, 태양과 달이 됨.
(*) 세계관은 자신이 믿는 태양신과 달신에 의해서 바라본다.

3) 지구(地球)에 내려올 때, 브라흐만, 비슈누, 시바의 법력(法力)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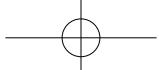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2) 유해교반(乳海攪拌)을 일으키는 ‘줄다리기’

4) 왜 지유(地乳)가 올라왔나?

5) 우주의 보물(寶物)로써 불사주(不死酒)를 지니고 올라온 가우리(Gauri)여신.

6) 승자(勝者)의 혜택: ① 아늑다라 삼막삼보리 ② 신(神)들을 위한 축제

7) 모하니(Mohini) - 와라두허허의 춤 - 거북할아범의 웃음 - 하늘의 파래진 까닭



3 강(講) : 마왕 예루리 사법신 해치(獬豸) 바루나, 의 탄생

- 멀티 주권, 멀티 국민, 멀티 영토가 전제된 민주주의의 '법의정신'

가. 마왕(魔王) 예루리의 탄생: 여인(女人)만 있었던 세상에서 남자를 만들기 위한 수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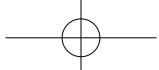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 ① 오친(敖欽) 여신 - 마고의 '살'로 9머리, 와러두허허의 '살'로 팔다리
- ② 오친(敖欽)을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나무허허'의 협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오친(敖欽)은 잡을 못자게 함. 이를 위해서 교활화(狡猾火)를 지니게 됨.
- ③ 원래 이리(狼)은 용암 속의 동물이었음.
- ④ 천랑성(天狼星)의 비밀
- ⑤ 와러두허허의 '어깨 뼈'와 겨드랑이 털 - 두 자매(姊妹)의 재촉
- ⑥ 와러두허허의 '짜증' - 몸에 지니고 있는 열석(熱石)을 2개 던짐
하나는 머리에 붙어 뿐, 하나는 사타구니에 붙어 '소소(남성기)'가 붙음.
- ⑦ 지나치게 더워서 용암(鎔巖) 속에서 탈출
- ⑧ 자웅동체(雌雄同體)가 되기 때문에, 마왕(魔王)은 자기증식성이 있다.

나. 마왕(魔王) 예루리가 처음 일으킨 도전

- 1) 파군성(破軍星) 리쉬(rishi)는 아트리(Atri: '먹는 자')의 위에 있는 보필(輔弼)의 '두 부자리(不者里) 별' 신도(神荼)와 울루(鬱壘)의 창(鎗)
- 2) 천원(天園) [=필수(畢宿)]과 천균(天囷(=균(菌)) [=위수(胃宿)])의 사막화 전략
- 3) 보수(補修)를 위해서 '검단(劍丹)선생'의 초청 - 화왕(花王) 백합(百合)선생
불사(不死) 삼족구(三足龜)의 6형제.
- 4) 개마(蓋馬)의 탄생, 단오(端午)의 유래

다. 사법신 사법신 해치(獬豸) 바루나(Varuna) 의 탄생

- 1) 세살박이 황소 아이의 탄생
- 2) 마왕(魔王)에 정면 돌격, 교활화(狡猾火)에 몸이 녹으면서 '황금말뚝'의 천애(天涯)에서 추락 - '시바(=시준(時俊)님)'의 작품
해치(獬豸)와 사호(虎虎)
- 3) 가우리(Gauri) 여신의 불사주(不死酒), 바루나(Varuna)의 '오랫줄'



4 강(講) : 뮤 대륙의 침몰(沈沒) 전후의 사건들

- 무엇을 위한 저항이고,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가?

가. 슈메르 문명의 사건

1) '작은 신(神)'들 아난나카는 운하(運河)만드는 노역(勞役)에 시달렸다.

“신들만이 땅에 사는 시절이 있었다. 신들이 삼태기를 들어야했던 때가 있었다. 신들이 흙이 뒤섞인 음식을 먹고 흙먹지로 더럽혀진 물의 마시던 옛날이 있었다.”

(신화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p165)

2) '아눈나카'의 폭동, 신들의 대책회의의 결론, 팔곡(八穀)의 비밀?

- 주동자 웨일라(We-ila)를 죽여 그 피(血)로 '진흙'으로 된 사람을 브록(block)으로 찍어내어 '아윌루(awilu.awilum)='사람, 노동자'가 되게 하는 사건.

4) 염라(閻羅: Yama)의 탄생, (오리온 법정) 삼성(參星)

5) “천랑녀(天狼女) 이시스'와 '하라(Hara)' 두개의 머리를 지닌 여인의 탄생

(가) 천랑(天狼)의 임신.

(나) 정수(井宿)에서 활을 2개의 화살을 쏜 노인성(老人星)의 의미

: 바루나(Varuna)가 오시리스에게 '오라'를 준 것이 바로 별(伐)성(星)

나. 바람의 신 바유(Vayu)가 얼음-위성 위의 사람들을 날려 보냄. 가우리(Gauri)여신 이를 잡으려 날아가는 사건.

다. 페르시아 문명에서 '자하크'에게 생긴 사건 - 전쟁의 발생

“놀라운 일이 뒤따랐다네. - 군주(자하크)의 양어깨에서 두 마리 검정 뱀이 자라났다네. 정신이 혼란해진 군주께서 // 치료법을 찾으셨다네. 결국 두 마리 뱀을 양어깨에서 잘라내셨네. 하지만 다시 자라났다네! 오!! 정말 기이한 일이라네! 나무의 가지처럼 그렇게 말일세.

.. 마침내 이블리스 (악마)가 급한 숨을 몰아쉬며 왔다네.

악마는 “이건 당신 운명이니 뱀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시오. 그들에게 인간의 뇌를 주어 배불리 먹이시오”라고 말했다네!!

‘샤나메(I.V.32,33) 페르시아 신화 베스타.S, 커티스/임용 옮김 범우사 p73

라. 무(巫)대륙의 왕과 왕후 - 제석천(帝釋天) 기질이 많은 청궁씨(青穹氏) 악몽(惡夢)과 대(代)를 이어 싸우기 위해 아들 낳기를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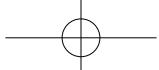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1) 바리에 일곱번째 공주(公主)를 실어서 보냄.

(2) 바리공주의 나타남.

(3) 뮤 대륙의 침몰

(4) 마우이(Maui) 형제들 '조상 턱뼈(고래 턱뼈)'로 뉴질랜드 섬(島)을 건져올린 사건.

: 북섬 (가우리)모양 => 가우리 여신의 귀환(歸還)의 조짐



5 강(講) : 가우리(Gauri) 여신(女神)의 귀환 : 바리 공주

- 공동 선(善)에 대한 필요악의 착취현상은 어찌 근절되는가?

가. '바리'에 공주(公主)를 태운 선박을 발견, 키운 바리 공덕(功德) 할멈. 할아범은 누구인가? - 여육(贅育)의 공국(公國)과 만파식적(萬波息笛)

나. 뮤 대륙에 들렸을 때의 사건 - 뮤 대륙의 침몰

다. 인도 서해안 고리(古里)과 '사자발 쑥'과 사자(獅子)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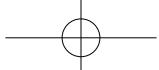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라. 귀문(鬼門)을 들어서서의 시험(試驗)들 - 만개의 허공교(虛空橋) 놓기, 검은 옷 빨기, 흰 옷 빨기,

마. 자미원(紫微垣) 별자리와 가우리(Gauri)여신의 귀환

- (1) '죽음의 북두칠성'에 남두육성(南斗六星)의 빛을 전한 '문창(文昌) 수리' 사건
- (2) 바리공주가 건넌 세 바다. (불, 피, 모래) - '천리(天理)' 속에 갖힌 '풍백(風伯)'
- (3) 천상(天上)의 미인(美人)의 등장, 바루나(Varuna)의 자각(自覺)!!
 - 마까라(Makara)의 탄생, 일식(日食), 월식(月食)의 유래
- (4) 천상(天上)에서 처음 낳은 리쉬(rishi)는
 - ① 신시(神市) 장자(長子) ② 자미수(紫微樹)

바. 이미 있는 리쉬(rishi)와 그 처(妻)들인 끄리띠까(Krittika)들

- (1) 탐랑성(貪狼星)
- (2) 거문성(巨門星)
- (3) 녹존성(祿存星)
- (4) 문곡성(文曲星)
- (5) 염정성(廉貞星)
- (6) 무곡성(武曲星)
- (7) 파군성(破軍星)



6 강(講) : 천조대신 자청비(紫青妃), 월독신 쓰깐다(Skanda)

- 일본의 신화는 왜 아시아의 영원한 저주(呪呪)가 되었는가?

가. 월독신(月讀神) 쓰깐다(Skanda)의 탄생.

(1) '시바'의 금욕, 슈베타 산의 '황금동굴'

(2) 아그니(Agni)를 사랑하는 스와하(Svaha), 끄리띠가(Krittika)에 대한 정염(情炎)

(3) 스깐다(Skanda)는 이란성 쌍둥이.

“신화로 만나는 인도” 노영자 엮음 PUFS p100”

- 중략(中略) - “그렇게 해서 황금나 구멍에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다. 그는 여섯번으로 떨어진 정액에서 태어났기에 6개의 머리와 12개의 발을 갖고 있었다. 황금으로 빛나는 신의 아들은 태어나서 나흘째에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포효했다 신들은 놀라서 달려와 싸움을 걸었는데, 위낙 강력하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을 알고 화해하고 반대로 그를 신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나. 무속(巫俗)설화가 신화(神話)의 성(聖)스럽, 전설(傳說)의 진실성을 잃어버리는 까닭.

(1) Spectacle (웅장성(雄壯性))의 조건들.

ⓐ 도구(道具)의 무대(舞臺)

ⓑ 인정된 가동(稼動)적 권리 - '어이 없음'

ⓒ 쌍방향적 표현의 실종(여오문(旅獒文) 문화)

ⓓ 만남의 관계가 '역랑고리'로 만나는가? 아니면 무능고리로 만나는가?

'랑시에르'의 '감성분할'

ⓔ 관객(觀客)과의 관계 -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다. 자청비(紫青妃)- 쌀 여신의 이야기

(1) 등장인물의 신화적 위치

거무선생:

문창도령:

수녀(須女)

정수남:

(2) 자청비(紫青妃)의 실제 내러티브(Narrative)

라. 일본신화-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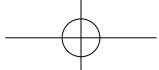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1) 일본열도의 창설 신화가 고대의 역사에 대한 호리병 역할을 한다.

(2) 서로 다른 왕조(王朝)를 '정서통합'을 위해서 하나로 묶어 놓았다.

(3) 문명(文明) 단위로 있는 '신화 체계'의 연결 고리에 대해서 '독립'되어 있다.

(4) 소도(蘇塗) 화백민주주의 대해인(大海臣)이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빠져있다.

(5) 광개토태왕에 의한 고일본의 멸망, 태왕(太王)의 인덕왕(仁德王)과의 동맹현상



7 강(講) : 물(水)에 의한 멸망 : '가우리 짜문다'

- 드라큐라 공포의 본질, 화랑과 원화의 신화적 근원

가. 홍수에 의한 인류의 멸망을 예언과 사전 대비

(1) 비뉴수의 첫번째 화신 브뜨씨야(Matsya(물고기))

: 쌔띠야브라따(Satyavrata)의 부탁: 일곱 명의 성선(聖仙)과 곡물을 태운 배
왜 성선(聖仙)들은 아무런 대응책을 못하였나?

(2) 홍수의 피해를 막은 신(神)들의 노력.

(A) 인도의 아담

(B) 시마의 대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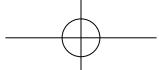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나. 물에 의한 멸망에서 살아남으려고 한 인류가 용궁(龍宮)에 사는 인어(人魚)가 됨.

다. 마왕(魔王) 예루리 '와러두허허'의 자작나무를 빼앗아서 모든 별(星)들을 체포

마. 마고(麻姑) 깊은 상치를 받음. '고슴도치 신'의 활동

- 화랑(花郎), 원화(源花)의 정신

바. 드라큐라 부대를 일거(一舉)에 퇴치한 '가우리 짜문다.'



8 강(講) : 당금애기와 ‘시바의 춤(Nataraja)’

- 사악한 리쉬(rishi: 칠성신)의 법력이 왜소화되는 까닭

가. 당금애기 무속신화의 원형(原形) 회복

- (1) 왜 시준(時俊)님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2) 숨겨진 무교(巫教) 코드(code)의 비밀

나. ‘쉬바’가 나뜨라자(춤의 왕)이 된 까닭

“신화로 만나는 인도,” 노영자 역음, PUFS p63 의 심층적 해석

“① 따라까 끝에 이단파인 성선(聖仙)들이 살았다.

- 이는 ‘문창(文昌) 수리에 쫓겨난 리쉬(Rishi)들임.

② 쉬바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는데, 화가 난 성선들은 마술로 불 가운데서 날뛰는 호랑이를 출현시켜 텁버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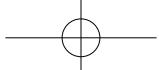
- 고대의 여오문(旅獒文)은 ‘범(=호랑이) 언어’와 ‘곰 언어’로 나뉘어 졌다.

③ 그러자 성선은 다음에 커다란 배을 보냈는데, 쉬바는 그것도 목걸이를 처럼 목에 두르고 춤추기 시작했다.

- 뱀은 지자기(地磁氣)의 뱀. 보호(保護)논리의 딜레마.

④ 마지막으로 성선들은 난쟁이 악귀를 불러 내어 쉬바를 덤쳤는데, 쉬바는 난쟁이를 밟고 그 뒤에서 계속 춤을 추었다.

- 난쟁이의 상징성은 무엇인가?



9 강(講) : 불(火)에 의한 멸망: 아틀란티스의 침몰과 고대의 핵(核)전쟁

- '핵전쟁 앞의 군(軍)의 순결성' 회복은 가능한가?

가. '마하바라타' 속의 핵전쟁

- 핵전쟁의 근본적 해결이 없으면, '안보(安保)의 진지성'은 물론 '삶에의 진정성'이 사라진다.

나. '아틀란티스'는 어디인가?

다. 메조-아메리카의 불(火)에 의한 멸망과 '새(鳥)가 된 인간'

마. 그리스의 불(火)의 비밀

바. 가우리(Gauri)여신, 스칸다(Skanda), 파라스라마(parishurama)가 총동원된 고대의 핵전쟁

사. 구미호(九尾狐)와 원광(圓光)법사의 '화약(火藥) 세속오계(世俗伍戒)

(1) 구미호(九尾狐)는 왜 성(聖)스러운가?

(2) 삼국유사의 기록.